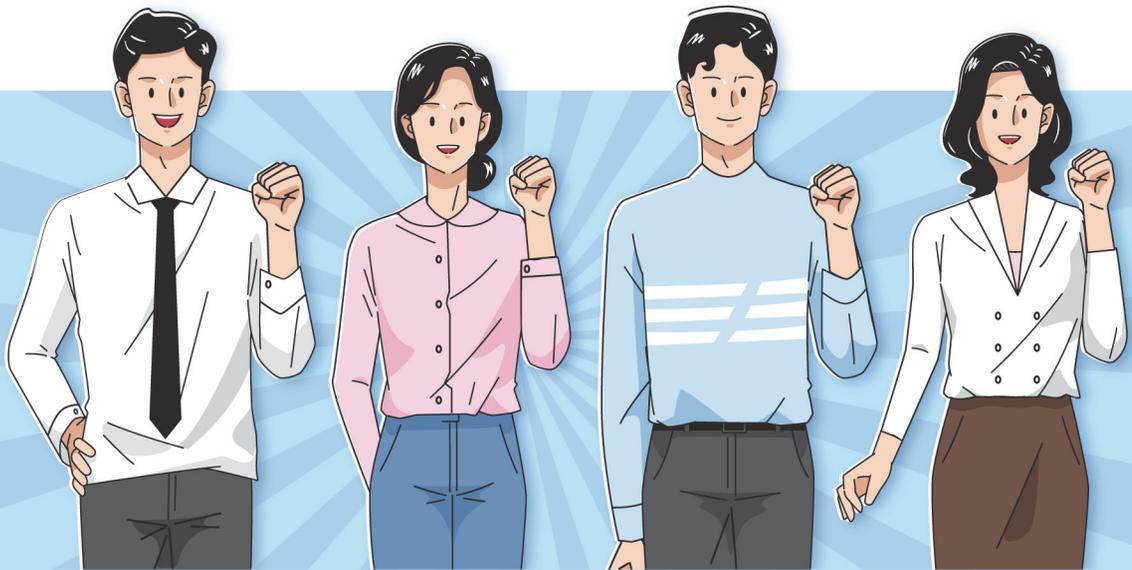


제26회 인구포럼

# 청년의 노동과 결혼·출산: 젠더와 계층의 교차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프로그램

14:00-14:05 **개회식**

개회사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축사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좌장: **최인이** 충남대학교 교수

14:05-14:25 주제발표 1 **비혼의 확산과 불완전한 젠더혁명**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4:25-14:45 주제발표 2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성 근로자의 출산 기회비용**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4:45-15:05 주제발표 3 **경제위기 이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 변화: 탈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15:05-15:15 휴식

15:15-16:00 **종합토론**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목차

[주제발표 1]

**비혼의 확산과 불안정한 젠더혁명 ..... 7**

최선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제발표 2]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성 근로자의 출산 기회비용 ..... 21**

최세림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제발표 3]

**경제위기 이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 변화:  
탈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 ..... 39**

이상직 |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이순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선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26회 인구포럼

청년의 노동과 결혼·출산: 젠더와 계층의 교차로

주제발표 1

# 비혼의 확산과 불완전한 젠더혁명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6회 인구포럼 (2021.1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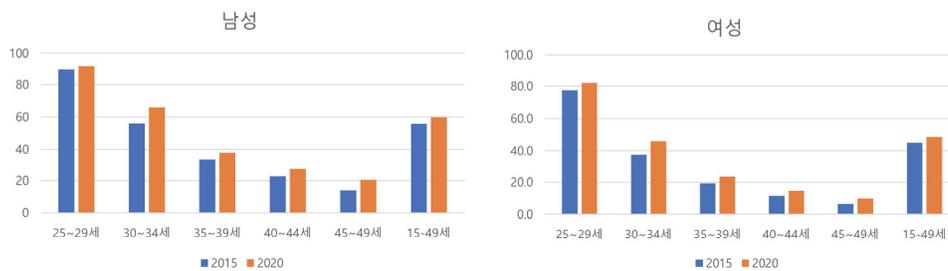
## 비혼의 확산과 불안정한 젠더혁명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1. 문제제기(1): 비혼의 확산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결과: 25~49세 사이 모든 연령층, 남성과 여성 모두 비혼인구 비중이 늘어남

그림 1. 성별 연령별 미혼율 (2015,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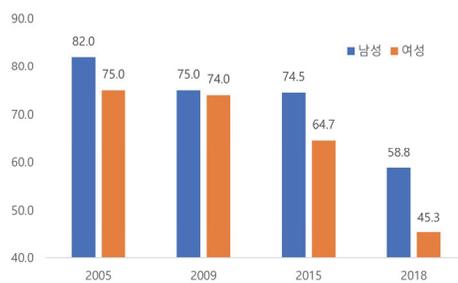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2020

## 1. 문제제기(2): 결혼의향의 감소

- 2005년 이후 20-44세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추이: 2015년 이후 결혼의향도 하락함. 특히 여성의 결혼의향이 급격히 낮아짐.

그림 2. 20-44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2005-2018, 부정기)



자료: 진미경, 정혜은(2010: 39);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연구배경

- 젠더혁명
  - 일반적으로 젠더혁명이란 성역할변화를 의미하며, 주로 여성의 생산노동참여 및 생애취업지향에 따라 기존의 여성화된 생애과정 및 결혼·출산을 등의 인구학적 결과, 가족 내 젠더 관계 등에 나타난 변화를 지칭한다(Goldin, 2006;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Goldscheider et. al, 2015).
  - 젠더혁명은 교육 및 취업과 같은 실천적 특성뿐만 아니라 성평등주의라는 가치지향도 내포한다(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여성들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중산층 전업주부형 생애모델로부터 생애취업 추구로 전환하는 것은 삶의 자립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욕구 및 가치와 관련이 있다(Goldscheider and Sassler, 2018). 미국 등에서는 고소득여성의 규모가 커지고 생애취업에 대한 보상이 커진 데 대한 합리적 선택이기도 하다(Goldin, 2006). 핵심은 '정체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배경

- 한국사회와 젠더혁명
  - 한국 기혼여성의 취업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소위 M자형 취업단절이 강하다. 중간소득층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이 덜 발달되어 있고, 강한 모성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남녀임금격차가 여전히 커서, 생애 취업추구의 동기구조가 취약하다. 한국사회의 젠더혁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 그러나 젠더혁명은 일회적인 사건이거나 대대적인 격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동학으로 이루어진다. 골딘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젠더혁명은 점진적인 변화기간과 결정적인 변화기간으로 이루어진다. 에스핑엔더슨과 빌라리는 젠더혁명 개념대신에 젠더균형 개념을 주장하는데, 기존의 젠더균형에서 이탈하여 다른 젠더균형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경로가 매우 동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골드사이어 등은 명시적으로 젠더혁명이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 따라서 젠더혁명의 개시단계, 젠더혁명의 전개 및 확산, 젠더혁명의 완성 등을 분석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연구배경

- 동적 과정으로서 젠더혁명 가설: 개시, 확산, 완성

|          | 개시              | 확산                 | 완성(안정화)            |
|----------|-----------------|--------------------|--------------------|
| 혼인행동     | 초혼연령상승          | 생애비혼 확산            | 결혼, 비혼, 동거 등 다양화   |
| 계층       | 고학력/취업자의 초혼연령상승 | 상위안정계층 vs. 하위불안정계층 | 파트너십과 계층간 연관성 모호해짐 |
| 결혼규범     | 연령규범 침식         | 결혼규범 침식 (결혼의향의 분화) | 새로운 결혼양식과 규범       |
| 지배적 젠더규범 | 전통적 젠더규범        | 젠더규범의 혼란           | 새로운 젠더 규범          |

### 3. 기존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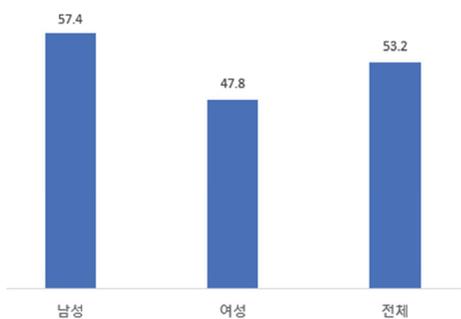
- 2000년대 연구: 결혼의향에 대한 국내 기존연구는 대부분 전국출산력조사 미혼남녀 조사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김정석(2006)은 2005년 자료를 분석하여 남녀의 결혼의향 결정요인을 분석. 성별에 따라 결혼의향의 결정요인이 다른데,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낮았지만, 여성은 학력과 결혼의향의 유의미한 관계 나타나지 않음. 진미정, 정혜은(2010)은 2005년과 2009년 자료 분석. 사회경제적 변수와 가치관변수(가족가치, 젠더규범 등)를 통해 남녀의 결혼의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 효과가 확인되지 않음. 성별효과는 결혼희망연령에만 영향을 미침. 취업 중이고 학력 높을 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높게 나타남.
- 2010년대 연구: 고선강, 어성연(2013)은 2009년 자료를 통해 가구소득이 남성의 결혼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함. 권수연 외(2017)는 25-34세 미혼남녀 대상 온라인조사를 통해, 결혼의향을 설명함. 성별효과가 나타남. 여성의 교육년수와 정규직 지위가 결혼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 여성의 안정된 노동시장 지위가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은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침.

### 4. 연구 대상과 방법

- 연구대상: 25-44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 분석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5-44세 성인남녀의 일과 가족 전망조사
  - 조사대상: 전국 25-44세 성인남녀 3,000명(미혼1,343명)
  - 조사일시: 2021년 11월 10일-19일
  - 조사방법: 위탁조사업체의 패널활용 온라인조사
- 주요 설명변수
  - 객관적 계층지위: 교육수준, 월평균취업소득
  - 주관적 계층점수, 주관적 안정성점수
  - 가치관 변수: 성평등주의, 경제적 능력 우선주의
  - 고용안정성 변수: 직장유형, 이직횟수, 고용형태, 이직희망여부, 결혼후고용지속문화 등
  - 희망 근로시간형태

## 5. 조사결과(1): 결혼지연에서 비혼선택으로

그림3. 25-44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일과가족전망조사

- 결혼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 57.4%, 여성 47.8%로 나타남.
- 2018년 전국출산력조사 결과와 유사함.
- 2000년대 후반에는 결혼의향이 남녀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다만 결혼희망연령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진미정, 정혜은, 2010).
- 그러나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자체가 큰 폭으로 떨어짐(이소영 외, 2018).
- 결혼시점을 연기하는 것(2015년 이전)으로부터, 결혼의향을 낮추는 것(2015년 이후)으로 전환됨.
- 특히 2015년 이후 여성의 결혼의향이 더 크게 떨어짐.

## 5. 조사결과(2): 희망 근로시간형태와 결혼의향의 관계

그림 4. 미혼남녀의 5년 후 원하는 근로시간형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일과가족전망조사

- 여성: 일/커리어 중심태도 강하지 않고, 결혼의향과의 관계도 없음.
- 남성: 상대적으로 일/커리어 지향 강하고 결혼의향과 관계가 있음. 특히 고소득 남성의 응답율(25.9%) 높음.
- 대체로 전일제 고용을 지향함.

|               | 남성         |       | 여성     |       |
|---------------|------------|-------|--------|-------|
|               | 의향없음       | 의향있음  | 의향없음   | 의향있음  |
| 1) 최대한 일하고 싶다 | 22.6       | 24.5  | 14.0   | 15.1  |
| 2) 법정 근로시간만 일 | 60.6       | 67.3  | 73.2   | 72.5  |
| 3) 시간제로 일     | 7.3        | 2.4   | 5.8    | 6.6   |
| 4) 일을 안 하고 싶다 | 9.5        | 5.9   | 7.0    | 5.8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 13.1692*** |       | 0.7641 |       |

## 5. 조사결과(3) : 가치관과 결혼의향의 관계

표 1.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를 원하면 낳는 것이 당연하다"의 동의비율(%)

|        | 남성         | 여성        |
|--------|------------|-----------|
| 의향없음   | 25.4       | 14.5      |
| 의향있음   | 42.2       | 23.5      |
| 전체     | 35.1       | 18.8      |
| (chi2) | (24.17***) | (7.68***) |

- 전반적으로 미혼남녀의 가치관의 차이는 크다.
- 남녀 모두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가족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혼의향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남성은 경제적 능력과 자녀출산의 관계에 대한 문항이 결혼의향과 관련이 높았고, 여성은 여성이 자녀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문항에 대한 태도가 결혼의향과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양육에 더 적합하다"의 동의비율(%)

|        | 남성     | 여성        |
|--------|--------|-----------|
| 의향없음   | 46.9   | 16.4      |
| 의향있음   | 49.7   | 25.4      |
| 전체     | 48.5   | 20.7      |
| (chi2) | (0.81) | (6.87***) |

## 6. 결혼의향의 결정요인 분석: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치관

- 분석대상: 25-44세 취업한 미혼 남성, 미혼 여성
- 분석방법: 다항로지분석
- 종속변수: "귀하는 현재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에 대해 '있다'(=1), '없다'와 '모르겠다'(=0)
- 독립변수: 5세연령집단, 교육수준, 월평균취업소득, 주관적 계층점수, 주관적 안정점수, 가치관 1, 가치관 2
- 그외 고용안정성 및 근로시간형태 등은 결혼의향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관적 안정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표3. 25-44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치관의 관계

| 독립변수               |           | <전체>     | <남성1>    | <여성1>    | <남성2>    | <여성2>    |
|--------------------|-----------|----------|----------|----------|----------|----------|
| 성별(남성)             | 여성        | -0.29*   |          |          |          |          |
| 연령집단(25-29세)       | 30-34세    | -0.17    | -0.55*   | 0.23     | -0.45*   | 0.27     |
|                    | 35-39세    | -0.70*** | -0.86**  | -0.62*   | -0.82**  | -0.57    |
|                    | 40-44세    | -1.11*** | -1.21*** | -1.10*** | -1.01*** | -1.20*** |
| 학력(고졸이하)           | 초대졸       | 0.44*    | 0.49     | 0.43     | 0.41     | 0.25     |
|                    | 대졸        | 0.63***  | 0.87***  | 0.43     | 0.76**   | 0.29     |
|                    | 대학원이상     | 1.08***  | 1.01**   | 1.23**   | 0.88*    | 1.00*    |
| 월평균취업소득 (200만원 미만) | 200-250미만 | 0.14     | 0.41     | -0.11    | 0.26     | -0.26    |
|                    | 250-300미만 | 0.56**   | 0.61*    | 0.59*    | 0.47     | 0.43     |
|                    | 300-350미만 | 0.73**   | 0.84**   | 0.62     | 0.63     | 0.35     |
|                    | 350-400미만 | 0.94*    | 0.87*    | 1.41*    | 0.49     | 0.94     |
|                    | 400만원 이상  | 1.05***  | 1.02**   | 1.37*    | 0.71*    | 0.90     |
| 주관적 계층점수(10점척도)    |           |          |          | 0.15     | 0.10     |          |
| 주관적 안정점수(10점척도)    |           |          |          | 0.07     | 0.17*    |          |
| 경제력과 자녀 태도         | 반대        |          |          | -0.65**  | -0.63*   |          |
| 성역할 가치관            | 반대        |          |          | 0.1      | -0.57*   |          |
|                    | 절편        | -0.19    | -0.24    | -0.44    | -0.74*   | -0.50    |
| PseudoR2           |           | 0.0629   | 0.0616   | 0.0720   | 0.1023   | 0.1226   |
| 사례수                |           | 1,053    | 597      | 456      | 597      | 456      |

- 첫번째 로짓분석에서, 연령집단을 통제했을 때,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취업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수와 무관하게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의향이 낮음. 성별은 결혼의향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5-44세 성인남녀의 일과 가족 전망 조사

주: 주관적 계층과 생활안정성 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계층이 높거나 안정적인. 자녀가치관은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녀를 원하면 알아야 한다"이고 '성역할 가치관'은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양육에 적합하다"임.

표3. 25-44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치관의 관계

| 독립변수               |           | <전체>     | <남성1>    | <여성1>    | <남성2>    | <여성2>    |
|--------------------|-----------|----------|----------|----------|----------|----------|
| 성별(남성)             | 여성        | -0.29*   |          |          |          |          |
| 연령집단(25-29세)       | 30-34세    | -0.17    | -0.55*   | 0.23     | -0.45*   | 0.27     |
|                    | 35-39세    | -0.70*** | -0.86**  | -0.62*   | -0.82**  | -0.57    |
|                    | 40-44세    | -1.11*** | -1.21*** | -1.10*** | -1.01*** | -1.20*** |
| 학력(고졸이하)           | 초대졸       | 0.44*    | 0.49     | 0.43     | 0.41     | 0.25     |
|                    | 대졸        | 0.63***  | 0.87***  | 0.43     | 0.76**   | 0.29     |
|                    | 대학원이상     | 1.08***  | 1.01**   | 1.23**   | 0.88*    | 1.00*    |
| 월평균취업소득 (200만원 미만) | 200-250미만 | 0.14     | 0.41     | -0.11    | 0.26     | -0.26    |
|                    | 250-300미만 | 0.56**   | 0.61*    | 0.59*    | 0.47     | 0.43     |
|                    | 300-350미만 | 0.73**   | 0.84**   | 0.62     | 0.63     | 0.35     |
|                    | 350-400미만 | 0.94*    | 0.87*    | 1.41*    | 0.49     | 0.94     |
|                    | 400만원 이상  | 1.05***  | 1.02**   | 1.37*    | 0.71*    | 0.90     |
| 주관적 계층점수(10점척도)    |           |          |          | 0.15     | 0.10     |          |
| 주관적 안정점수(10점척도)    |           |          |          | 0.07     | 0.17*    |          |
| 경제력과 자녀 태도         | 반대        |          |          | -0.65**  | -0.63*   |          |
| 성역할 가치관            | 반대        |          |          | 0.1      | -0.57*   |          |
|                    | 절편        | -0.19    | -0.24    | -0.44    | -0.74*   | -0.50    |
| PseudoR2           |           | 0.0629   | 0.0616   | 0.0720   | 0.1023   | 0.1226   |
| 사례수                |           | 1,053    | 597      | 456      | 597      | 456      |

- 남성1과 여성1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 즉,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상위계층의 남성과 여성이 결혼의향이 높고, 반대로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이 결혼의향이 낮으며, 남녀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줌.
- 젠더혁명의 확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5-44세 성인남녀의 일과 가족 전망 조사

주: 주관적 계층과 생활안정성 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계층이 높거나 안정적인. 자녀가치관은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녀를 원하면 알아야 한다"이고 '성역할 가치관'은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양육에 적합하다"임.

표2. 25-44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치관의 관계

| 독립변수                  |           | <전체>     | <남성1>    | <여성1>    | <남성2>    | <여성2>    |
|-----------------------|-----------|----------|----------|----------|----------|----------|
| 성별(남성)                | 여성        | -0.29*   |          |          |          |          |
| 연령집단(25-29세)          | 30-34세    | -0.17    | -0.55*   | 0.23     | -0.45*   | 0.27     |
|                       | 35-39세    | -0.70*** | -0.86**  | -0.62*   | -0.82**  | -0.57    |
|                       | 40-44세    | -1.11*** | -1.21*** | -1.10*** | -1.01*** | -1.20*** |
| 학력(고졸이하)              | 초대졸       | 0.44*    | 0.49     | 0.43     | 0.41     | 0.25     |
|                       | 대졸        | 0.63***  | 0.87***  | 0.43     | 0.76**   | 0.29     |
|                       | 대학원이상     | 1.08***  | 1.01**   | 1.23**   | 0.88*    | 1.00*    |
| 월평균취업소득<br>(200만원 미만) | 200-250미만 | 0.14     | 0.41     | -0.11    | 0.26     | -0.26    |
|                       | 250-300미만 | 0.56**   | 0.61*    | 0.59*    | 0.47     | 0.43     |
|                       | 300-350미만 | 0.73**   | 0.84**   | 0.62     | 0.63     | 0.35     |
|                       | 350-400미만 | 0.94*    | 0.87*    | 1.41*    | 0.49     | 0.94     |
|                       | 400만원 이상  | 1.05***  | 1.02**   | 1.37*    | 0.71*    | 0.90     |
| 주관적 계층점수(10점척도)       |           |          |          | 0.15     | 0.10     |          |
| 주관적 안정점수(10점척도)       |           |          |          | 0.07     | 0.17*    |          |
| 경제력과 자녀 태도            | 반대        |          |          |          | -0.65**  | -0.63*   |
| 성역할 가치관               | 반대        |          |          |          | 0.1      | -0.57*   |
|                       | 절편        | -0.19    | -0.24    | -0.44    | -0.74*   | -0.50    |
|                       | PseudoR2  | 0.0629   | 0.0616   | 0.0720   | 0.1023   | 0.1226   |
|                       | 사례수       | 1,053    | 597      | 456      | 597      | 456      |

-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성격의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남성2와 여성2 모형을 구성함.
- 주관적 계층점수와 주관적 안정점수를 모형에 포함한 결과, 기존 학력 및 소득 변수의 회귀계수값이 작아지거나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함. 남성2보다는 여성2에서 두드러짐.
- 여성2 모형에서만 주관적 안정점수의 효과가 확인됨. 현재 자기 생활이 안정적일 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5-44세 성인남녀의 일과 가족 전망 조사

주: 주관적 계층과 생활안정성 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계층이 높거나 안정적인. 자녀가치관은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녀를 원하면 낳아야 한다"이고 '성역할 가치관'은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양육에 적합하다"임.

표3. 25-44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치관의 관계

| 독립변수                  |           | <전체>     | <남성1>    | <여성1>    | <남성2>    | <여성2>    |
|-----------------------|-----------|----------|----------|----------|----------|----------|
| 성별(남성)                | 여성        | -0.29*   |          |          |          |          |
| 연령집단(25-29세)          | 30-34세    | -0.17    | -0.55*   | 0.23     | -0.45*   | 0.27     |
|                       | 35-39세    | -0.70*** | -0.86**  | -0.62*   | -0.82**  | -0.57    |
|                       | 40-44세    | -1.11*** | -1.21*** | -1.10*** | -1.01*** | -1.20*** |
| 학력(고졸이하)              | 초대졸       | 0.44*    | 0.49     | 0.43     | 0.41     | 0.25     |
|                       | 대졸        | 0.63***  | 0.87***  | 0.43     | 0.76**   | 0.29     |
|                       | 대학원이상     | 1.08***  | 1.01**   | 1.23**   | 0.88*    | 1.00*    |
| 월평균취업소득<br>(200만원 미만) | 200-250미만 | 0.14     | 0.41     | -0.11    | 0.26     | -0.26    |
|                       | 250-300미만 | 0.56**   | 0.61*    | 0.59*    | 0.47     | 0.43     |
|                       | 300-350미만 | 0.73**   | 0.84**   | 0.62     | 0.63     | 0.35     |
|                       | 350-400미만 | 0.94*    | 0.87*    | 1.41*    | 0.49     | 0.94     |
|                       | 400만원 이상  | 1.05***  | 1.02**   | 1.37*    | 0.71*    | 0.90     |
| 주관적 계층점수(10점척도)       |           |          |          | 0.15     | 0.10     |          |
| 주관적 안정점수(10점척도)       |           |          |          | 0.07     | 0.17*    |          |
| 경제력과 자녀 태도            | 반대        |          |          |          | -0.65**  | -0.63*   |
| 성역할 가치관               | 반대        |          |          |          | 0.1      | -0.57*   |
|                       | 절편        | -0.19    | -0.24    | -0.44    | -0.74*   | -0.50    |
|                       | PseudoR2  | 0.0629   | 0.0616   | 0.0720   | 0.1023   | 0.1226   |
|                       | 사례수       | 1,053    | 597      | 456      | 597      | 456      |

- 가치관은 남녀 모두의 결혼의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녀를 원하면 낳아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결혼의향이 높았음. 남녀 모두에서 나타난 경향임.
- 여성은 성평등주의 가치관을 가질수록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남.
- 결론적으로,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위계와 젠더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관적 평가와 가치관을 매개하여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5-44세 성인남녀의 일과 가족 전망 조사

주: 주관적 계층과 생활안정성 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계층이 높거나 안정적인. 자녀가치관은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녀를 원하면 낳아야 한다"이고 '성역할 가치관'은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양육에 적합하다"임.

## 7. 연구결과 요약

- 1) 2010년대 이후 결혼규범(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은 크게 약화되었고, 이에 더하여 개인의 결혼 의향도 분화되고 있음. 결혼의향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의향이 더 낮게 나타남.
- 2)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이 결혼의향의 차이를 설명해줌.
- 3) 여성은 현재 삶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성평등가치관을 가질수록 결혼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은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4)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생애과정 의사결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경제중심적 사고가 널리 확산되어 있고, 남녀 모두의 결혼의향과 상관관계가 높음.
- 5) 2000년대 초부터 나타난 결혼행동의 변화(젠더혁명의 개시)는 질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결혼행동 뿐만 아니라 결혼의향이 계층적으로 분화되고 있음.

## 8. 토론

- 여성들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변수보다 주관적인 안정성 척도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가 개인이 체감하는 안정성 정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음.
- 주관적 안정성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OLS분석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직장유형, 정규직여부, 현직장이직의향, 결혼후고용유지전망 등이 현재 삶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확인됨. 노동시장제도와 문화로부터 불리한 경험이 축적된 것이 '불안정성'을 높이고 이것이 여성들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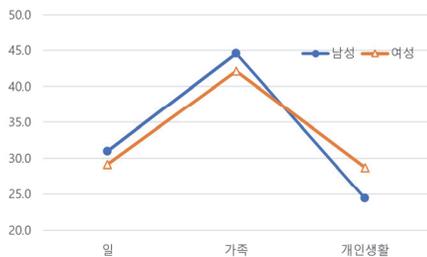
## 8. 토론

- 일반적으로 결혼의향은 결혼행동의 예측지표로 간주됨. 그러나 현재 결혼의향 수준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도 함. 따라서 결혼의향을 결혼에 대한 태도나 의미를 표현하는 지표로 재해석해볼 수도 있음.
- 남녀 모두 가족(자녀) 생애과정 결정을 경제적 능력에 종속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이러한 태도는 합리적이거나 현실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음. 그러나 결혼의향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 생애과정 변화에 따르는 위험이 집단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개인의 책임과 개인의 위험으로 인식될 수록 결혼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음.
- 성평등주의 가치관을 가질 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의 현실이 성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내포되어 있음. 다만, 여성 행위자들이 성평등주의를 동원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함.

## 8. 토론

-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향후 일-가족-개인생활의 상대적 비중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음.

그림 5. 결혼의향 있는 미혼남녀의 결혼 후 지향하는 일-가족-개인생활의 비중(%)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5-44세 성인남녀의 일과 가족 전망 조사

- 결혼의향이 있는 사람은 남녀 모두 가족에 가장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으로 일과 개인생활을 중요시함.
- 다만, 여성은 일과 가족을 의무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개인생활에 중요성을 높게 부여한 반면, 남성은 일 중심 시각을 탈피하여 가족생활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보임.

|      | 남성   | 여성   | F값    | Prob>F |
|------|------|------|-------|--------|
| 일    | 31.0 | 29.2 | 3.05  | 0.0814 |
| 가족   | 44.6 | 42.1 | 5.78  | 0.0165 |
| 개인생활 | 24.4 | 28.7 | 18.51 | 0.0000 |

## 8. 토론

---

-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실제로 결혼이행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결혼의향도 높고, 반대로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실제로 결혼이행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결혼의향도 낮다는 것은 실제 결혼생활과 젠더관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축할 수 있는 역량과 기대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
- 최근 10년 간의 결혼은 어떻게 성사되고 그 속의 젠더관계는 어떠한가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혼인의 보편성을 전제했던 정책에서 혼인의 선택성과 사회계층적 위계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젠더혁명이라는 사회구조적 변화 동안 발생하는 위험을 개인화하기보다는 집단화하는 수단을 마련해야 함.



제26회 인구포럼

청년의 노동과 결혼·출산: 젠더와 계층의 교차로

주제발표 2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성 근로자의 출산 기회비용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12.03

제26회 인구포럼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성 근로자 출산의 기회비용

**KLI** 한국노동연구원  
최세림 부연구위원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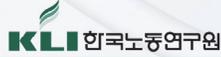
**KLI** 한국노동연구원

### I . 연구 배경

### II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출산의 기회비용 분석

- 연구 목적
- 선행 연구
- 분석 자료와 방법
- 분석 결과

### III 정책 제언



# I 연구 배경

3

## 01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개인의 출산 선택의 관련성

- ❖ **노동~출산 결정의 관계:**  
경제학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출산 결정을 살펴보면, 출산 선택은
  - 단기적으로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 장기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추가시간 투입을 위하여 노동시장에 투입하는 시간을 대체하여야 해서, 노동 소득 손실을 유발 → 출산의 기회비용(Becker, 1965; Mincer, 1962 등)
    - \* 대체되는 기회비용: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시간, 미래 소득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교육, OJT, 임금 고성장형 직무/일자리 선택 등)
-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 노동시장 이중구조: 일자리의 좋은 요소들이 좋은 요소는 좋은 요소끼리, 나쁜 요소는 나쁜 요소끼리 결합되어 일자리들이 양분화 되는 현상(Dickens and Lang, 1987)
  -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1차 노동시장")들은 높은 임금, 높은 고용안정성, 다양한 복지혜택, +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모성보호제도 활용의 용이성이 높음.
  - 반면 좋지 않은 일자리("2차 노동시장", 외부 노동시장)은 반대.
  - 공공부문/대기업 근로자의 자녀 출산이 활발하고, 제도 활용이 활발한 것을 볼 때 분명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출산의 기회비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

4

### 01 | 기업 규모별 출산여건-임신·출산



| 항목           | 응답 내용            |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        |        |          |         |      |
|--------------|------------------|--|--------|--------|----------|---------|------|
|              |                  | 5~9인   | 10~29인 | 3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      |
| 출산 휴가        | 인지도              | 잘 알고 있다  |        |        |          |         |      |
|              | 활용 가능성           |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 50.3   | 54.9   | 66.1     | 73.6    | 89.5 |
|              |                  | 활용 가능하나, 직장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 42.6   | 59.8   | 70.6     | 82.5    | 95.8 |
|              |                  | 전혀 활용할 수 없음                                    | 23.0   | 29.9   | 19.4     | 15.0    | 3.8  |
| 배우자 출산 휴가    | 인지도              | 잘 알고 있다  |        |        |          |         |      |
|              | 활용 가능성           |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 34.3   | 10.3   | 10.0     | 2.5     | 0.3  |
|              |                  | 활용 가능하나, 직장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 41.0   | 46.1   | 60.9     | 68.4    | 76.5 |
|              |                  | 전혀 활용할 수 없음                                    | 26.5   | 33.0   | 25.3     | 22.1    | 17.8 |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 인지도              | 잘 알고 있다  |        |        |          |         |      |
|              | 활용 가능성           |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 32.5   | 20.9   | 13.7     | 9.5     | 5.6  |
|              |                  | 활용 가능하나, 직장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 24.8   | 36.2   | 51.9     | 59.1    | 79.8 |
|              |                  | 전혀 활용할 수 없음                                    | 39.2   | 46.9   | 62.2     | 68.9    | 81.9 |
| 기타 모성 보호 제도  | 유산 휴가            | 활용가능(예 응답)                                     |        |        |          |         |      |
|              | 임신 중 시간외 근무 금지   | 47.6   | 71.4   | 84.5   | 85.6     | 92.2    |      |
|              | 임신 중 위험 유해 직무 금지 | 49.2   | 74.0   | 85.4   | 86.5     | 93.7    |      |
|              | 출산 후 시간외 근무 금지   | 25.0   | 38.5   | 43.9   | 46.3     | 57.6    |      |
|              |                  | 42.1   | 69.1   | 82.2   | 82.2     | 92.4    |      |

### 01 | 기업 규모별 출산여건-육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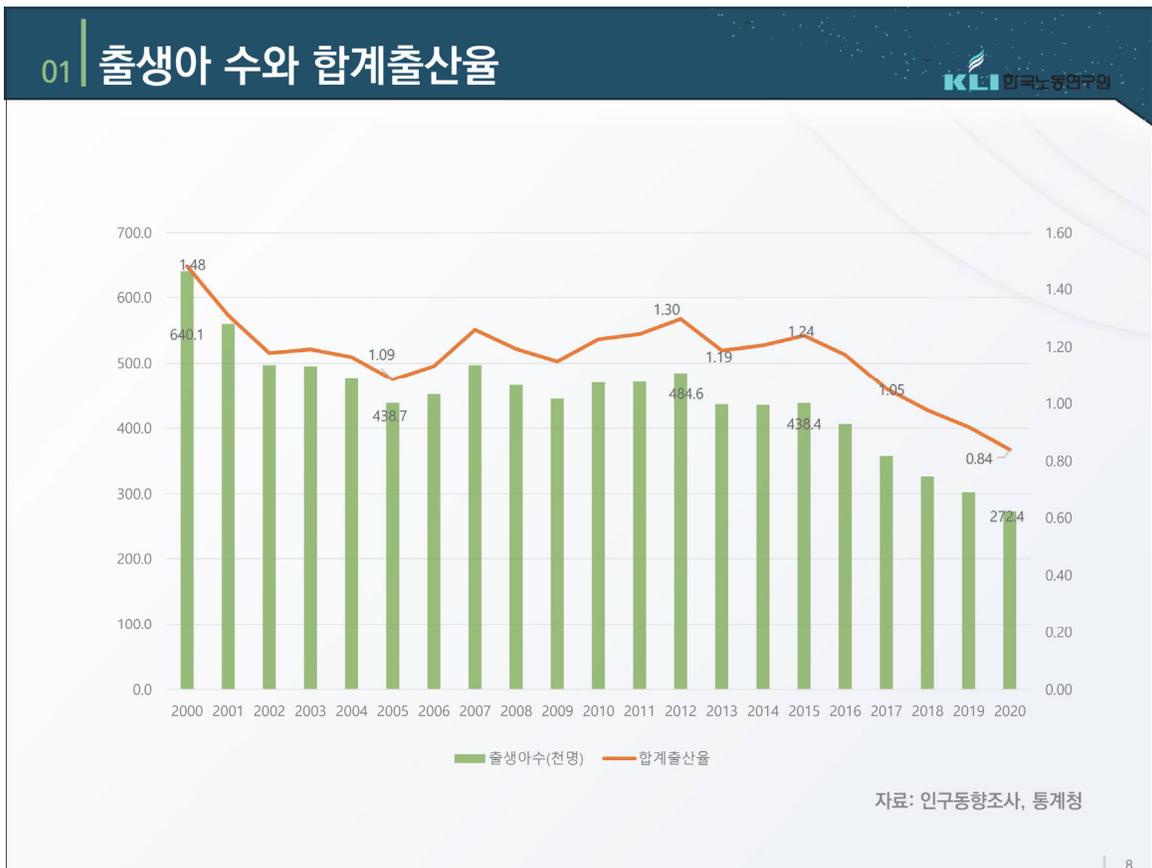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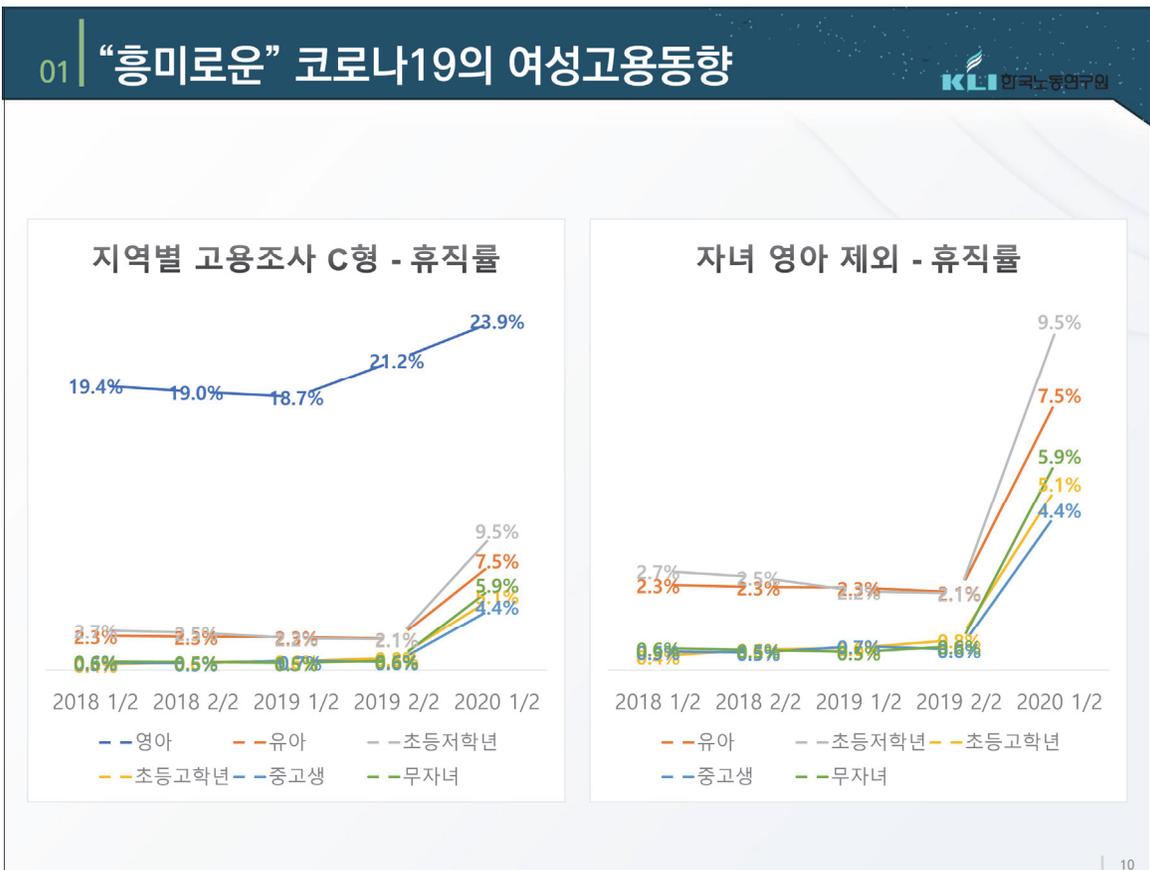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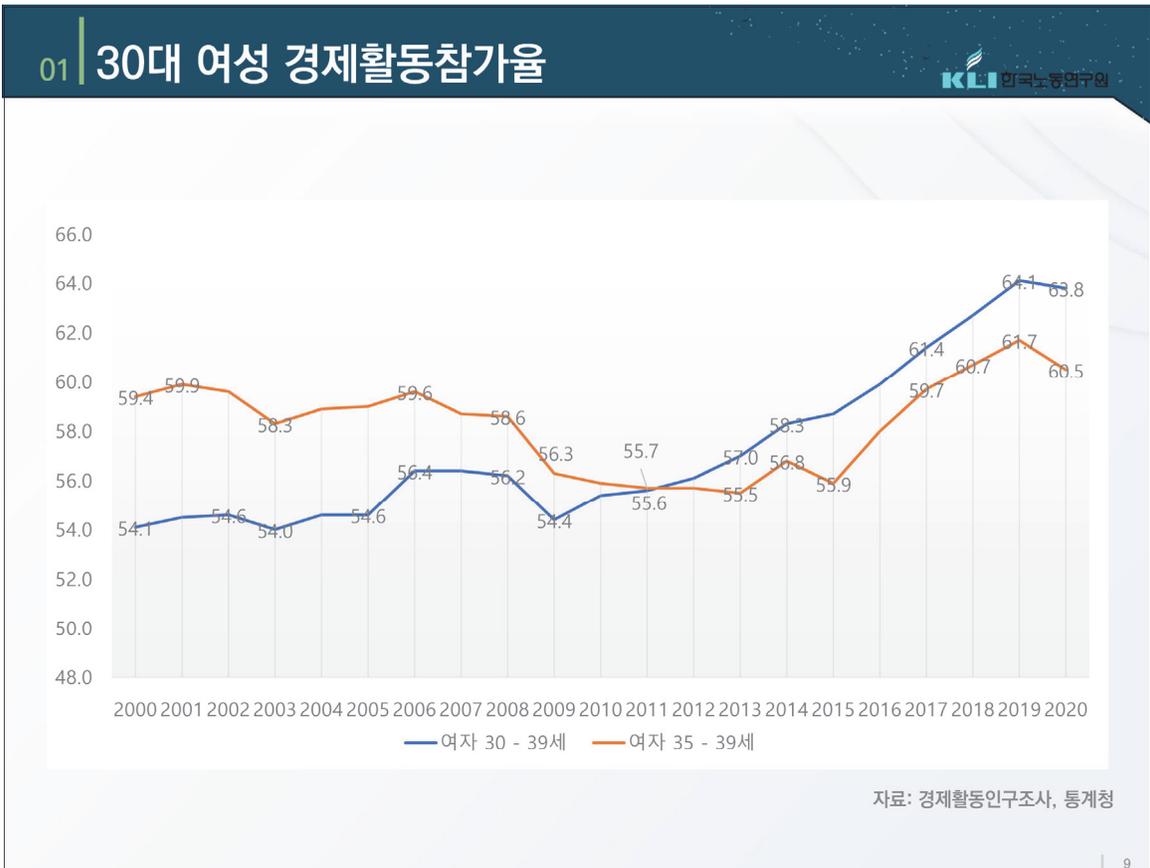
| 항목           | 응답 내용         |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        |        |          |         |      |
|--------------|---------------|--|--------|--------|----------|---------|------|
|              |               | 5~9인   | 10~29인 | 3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      |
| 육아 휴직 제도     | 인지도           | 잘 알고 있다  |        |        |          |         |      |
|              | 활용 가능성        |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 25.0   | 37.3   | 56.5     | 63.1    | 86.2 |
|              |               | 활용 가능하나, 직장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 36.3   | 46.7   | 60.4     | 65.5    | 85.4 |
|              |               | 전혀 활용할 수 없음                                    | 24.2   | 34.0   | 24.3     | 19.5    | 8.8  |
|              |               | 활용 실적  | 39.5   | 19.3   | 15.3     | 15.0    | 5.8  |
|              | 활용실적 없는 이유    | “있다” 비중  | 2.5    | 5.7    | 14.2     | 39.3    | 89.9 |
|              |               | 대상자가 없어서                                       | 89.0   | 89.0   | 85.0     | 83.0    | 84.0 |
|              | 육아휴직 사용 부담 정도 |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 11.0   | 11.0   | 15.0     | 17.0    | 16.0 |
|              |               |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                        | 44.4   | 44.0   | 52.1     | 64.5    | 74.7 |
|              |               | 신청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낌                               | 36.1   | 35.8   | 39.0     | 27.4    | 24.0 |
|              |               | 19.5   | 20.2   | 8.9    | 8.1      | 1.4     |      |
| 육아기 근무 단축 제도 | 인지도           | 잘 알고 있다  |        |        |          |         |      |
|              | 활용 가능성        |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 14.8   | 24.5   | 41.8     | 49.3    | 72.7 |
|              |               | 활용 가능하나, 직장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 36.1   | 43.0   | 50.9     | 56.0    | 67.7 |
|              |               | 전혀 활용할 수 없음                                    | 36.6   | 41.8   | 40.8     | 26.8    | 21.1 |
|              |               | 27.3   | 15.2   | 8.3    | 17.2     | 11.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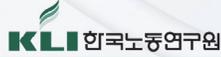
### 01 | 기업 규모별 출산여건-임신·출산

KLI 한국노동연구원

| 자료 및 표본 구분    |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19년 하반기(여성 25~45세) |         |           | 한국노동패널 12~21차(기혼, 25~39세) |         |           |
|---------------|------------------|---------------------------------|---------|-----------|---------------------------|---------|-----------|
| 노동시장 참여 형태 구분 |                  | 자녀있음(%)                         | 평균 자녀 수 | 유자녀자 자녀 수 | 자녀있음(%)                   | 평균 자녀 수 | 유자녀자 자녀 수 |
| 경제 활동         | 참가               | 49%                             | 1.67    | 1.74      | 78%                       | 1.33    | 1.75      |
|               | 비참가              | 68%                             | 1.72    | 1.76      | 88%                       | 1.53    | 1.73      |
| 고용 형태         | 정규직              | 47%                             | 1.65    | 1.73      | 82%                       | 1.2     | 1.66      |
|               | 계약종료되는 상용직       | 47%                             | 1.67    | 1.74      | 88%                       | 1.45    | 1.81      |
|               | 임시/일용직           | 55%                             | 1.69    | 1.77      |                           |         |           |
|               | 비임금근로            | 57%                             | 1.69    | 1.77      | 87%                       | 1.61    | 1.95      |
| 소득 수준         | 100만원 이하         | 69%                             | 1.76    | 1.82      | 85%                       | 1.57    | 1.85      |
|               | 200만원 이하         | 48%                             | 1.65    | 1.75      | 72%                       | 1.23    | 1.7       |
|               | 300만원 이하         | 42%                             | 1.62    | 1.68      | 72%                       | 1.19    | 1.66      |
|               | 300만원 이상         | 62%                             | 1.65    | 1.68      | 81%                       | 1.41    | 1.74      |
| 사업체 유형        | 소기업(50인 미만)      |                                 |         |           | 82%                       | 1.29    | 1.76      |
|               | 중기업(50~300인)     |                                 |         |           | 80%                       | 1.07    | 1.55      |
|               | 중견기업(300~1,000인) |                                 |         |           | 81%                       | 1.25    | 1.68      |
|               | 대기업(1,000인 이상)   |                                 |         |           | 87%                       | 1.28    | 1.66      |
|               | 공공부문             |                                 |         |           | 88%                       | 1.35    | 1.69      |







## II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출산의 기회비용 분석

• 본 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출산과 여성노동’의 제2장으로 수록된 내용입니다.

11

### 02 | 연구 목적



- ❖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출산의 기회비용 격차를 확인
- ❖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비슷한 상황의 “선배”의 경험이 미출산 여성들의 출산의 기대 기회비용을 형성하는 정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출산의 기대 기회비용에 포함되는 항의 값을 이중 노동시장으로 구분되는 집단별로 추정하여 출산의 기대 기회비용의 격차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12

## 02 | 자녀출산의 생애 기대 기회비용



- ❖ 현재( $\tau=0$ ) 노동시장에서 상태( $L_0$ ), 기타 자신의 조건( $X_0$ )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예상 임금 흐름(income stream), 출산을 하게 될 때, 생산성 손실이나 경력 손실로 인하여 얻게 될 임금 흐름을 예상한다고 가정

$\{W_1, W_2, W_3 \dots W_T\}$  :  $L_0, X_0$  바탕으로 한 비출산 시 예상 임금 흐름

$\{\bar{W}_1, \bar{W}_2, \bar{W}_3, \dots \bar{W}_T\}$  :  $L_0, X_0$  바탕으로 한 출산 시 예상 임금 흐름

$\{\Pi_1, \Pi_2, \Pi_3 \dots \Pi_T\}$  :  $L_0, X_0$  바탕으로 한 출산 시 생산성 및 경력 손실 확률

$\{\check{\Pi}_1, \check{\Pi}_2, \check{\Pi}_3, \dots \check{\Pi}_T\}$  :  $L_0, X_0$  바탕으로 한 출산 시 노동 이탈(무소득/비경활 이행) 확률

- ❖ 이 경우,  $t$ 시점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출산의 생애 기대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자녀출산의 생애 기대 기회비용} &= \text{무자녀 기대 생애임금} - \text{유자녀 기대 생애임금} \\
 E(C_0 | L_0, X_0) &= E(\text{total wage}_{\text{nochild}} | L_0, X_0) - E(\text{total wage}_{\text{haschild}} | L_0, X_0)
 \end{aligned}$$

| 13

## 02 | 자녀출산의 생애 기대 기회비용



- ❖ 즉, 생애 기대 기회비용은 각 기 예상 임금 손실 규모와 생산성 및 경력 손실 가능성, 노동 이탈 가능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 ‘ $t$ ’시점 출산의 기회비용을 현재(0)시점에서 예측한 값은, 출산의 임금 패널티 수준, 노동시장 이탈 확률, 생산성 하락 확률, 무자녀 임금이 높을수록 크다.

$$\begin{aligned}
 E(C_0 | L_0, X_0) &= \left[ W_1 + \frac{1}{1+r} W_2 + \frac{1}{1+r^2} W_3 + \dots + \frac{1}{1+r^t} W_t + \dots + \frac{1}{1+r^T} W_T \right] \\
 &\quad - \left[ W_1 + \frac{1}{1+r} W_2 + \dots + \frac{1}{1+r^t} (W_t(1-\Pi_t-\check{\Pi}_t) + \bar{W}_t\Pi_t) \right. \\
 &\quad \quad + \frac{1}{1+r^{t+1}} (W_{t+1}(1-\Pi_{t+1}-\check{\Pi}_{t+1}) + \bar{W}_{t+1}\Pi_{t+1}) \\
 &\quad \quad + \dots + \frac{1}{1+r^T} (W_T(1-\Pi_T-\check{\Pi}_T) + \bar{W}_T\Pi_T) \left. \right] \\
 &= \frac{1}{1+r^t} (\Pi_t(W_t - \bar{W}_t) + \check{\Pi}_t W_t) + \dots \\
 &\quad + \frac{1}{1+r^T} (\Pi_T(W_T - \bar{W}_T) + \check{\Pi}_T W_T) \\
 &= \sum_{j=0}^K \frac{1}{1+r^{t+j}} [(W_{t+j} - \bar{W}_{t+j})\Pi_{t+j} + W_{t+j}\check{\Pi}_{t+j}] \\
 &\quad \text{where } r = \text{discount rate (이자율)}, T = \text{은퇴시점}, t+K=T
 \end{aligned}$$

| 14

## 02 | 연구 내용

### ❖ 다음에 대하여 추정함

- (1) 노동시장 위치 별 자녀 출산이 임금 손실 규모 격차
- (2) 노동시장 위치 별 자녀 출산이 노동 이동 이탈 확률 격차

### ❖ 그 후, 집단별 생애 기대 기회비용의 격차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를 계산함.

## 02 | 선행연구

### ❖ 모성패널티 관련 연구

- 1) 규모추정:
  - 국가별로 수준이 상이하지만 존재(7~20%대)
  - 대체로 패널모형, PSM 사용, 표본선택편의에 대한 논의는 부족  
(Waldfoegel, 1998; Killewald et al, 2013; Lundberg & Rose, 2000; Adda et al, 2015; Kahn et al, 2014 등)
- 2) 원인 및 영향 요인:
  - 단기, 장기 경력단절  
(Lundberg & Rose, 2000; Bertand et al, 2010; Budig & England, 2001; Grunner & Aisenbrey, 2016; Baum, 2002 등)
  - 생산성 하락(Gallen, 2018)
  - 가구내 가사노동 분담(Juhn & McCue, 2017; Siegel, 2017 등)
  - 일자리 유지 보장하는 모성보호제도: 모성패널티를 낮춤  
(손연정 & 김근주, 2018; Baker & Milligan, 2008; Rossin-Slater et al, 2013; Lalive & Zweimuller, 2009; Yamaguchi, 2019 등)

###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에는 주로 자녀출산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이었다면, 본 연구는 노동시장 계층별 격차에 초점을 둔 연구

## 02 | 분석자료



- ❖ 노동패널 1~22차 75~95년생 표본 중 20~45세이며(가임기) 처음으로 전일제 임금근로자로 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를 포함한 패널 표본 추출
  - 노동 및 출산 선호, 노동 환경 등이 유사한 집단(예-80년대생) 추출이 이상적이지만 표본 수 제약
  - 코호트 특성은 패널 고정효과로 통제
- ❖ 표본 수 2,725개 627명
- ❖ 계량 분석은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기(t+1) 이행과 현재(t기)의 임금에 대한 분석을 함.
- ❖ 따라서 t기에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표본이 유효표본
- ❖ 표본 수 2,050개(전일제 한정: 2,009개)
- ❖ 선별적 노동참여 선택 이슈
  - 패널 고정효과 모형 사용으로 어느정도 해소
  - \* 시간불변 요인으로 인한 선별적 참여는 통제됨
  - \* Wooldridge(1995)방식으로 패널 표본선택 모형 추정시, 표본선택편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횡단면에서는 존재)

## 02 | 분석 표본 기초 통계



| 변수          | 관측 첫째 전체 표본 |       |       | 전체 패널 표본 |       |       | 변수          | 임금근로자 |       |       | 전일제 임금근로자 |       |       |
|-------------|-------------|-------|-------|----------|-------|-------|-------------|-------|-------|-------|-----------|-------|-------|
|             | N           | 평균    | 표준 편차 | N        | 평균    | 표준 편차 |             | N     | 평균    | 표준 편차 | N         | 평균    | 표준 편차 |
| 연령          | 627         | 30.86 | 5.34  | 2,725    | 33.10 | 4.93  | 연령          | 2,050 | 32.97 | 5.13  | 2009      | 32.93 | 5.12  |
| 75~79년생     | 627         | 0.26  | 0.44  | 2,725    | 0.39  | 0.49  | 75~79년생     | 2,050 | 0.39  | 0.49  | 2009      | 0.39  | 0.49  |
| 80~89년생     | 627         | 0.56  | 0.50  | 2,725    | 0.53  | 0.50  | 80~89년생     | 2,050 | 0.51  | 0.50  | 2009      | 0.50  | 0.50  |
| 90~95년생     | 627         | 0.18  | 0.39  | 2,725    | 0.08  | 0.27  | 90~95년생     | 2,050 | 0.10  | 0.30  | 2009      | 0.10  | 0.30  |
| 교육연수        | 627         | 14.78 | 1.76  | 2,725    | 14.86 | 1.75  | 교육연수        | 2,050 | 14.94 | 1.79  | 2009      | 14.94 | 1.79  |
| 기혼          | 627         | 0.62  | 0.49  | 2,725    | 0.79  | 0.41  | 기혼          | 2,050 | 0.74  | 0.44  | 2009      | 0.74  | 0.44  |
| 자녀있음        | 627         | 0.30  | 0.46  | 2,725    | 0.61  | 0.49  | 자녀있음        | 2,050 | 0.54  | 0.50  | 2009      | 0.53  | 0.50  |
| 자녀 수(유자녀자)  | 190         | 1.57  | 0.68  | 1,661    | 1.63  | 0.63  | 자녀 수(유자녀자)  | 1,098 | 1.66  | 0.63  | 1066      | 1.65  | 0.62  |
|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 | 160         | 4.03  | 4.03  | 1,596    | 4.05  | 3.36  |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 | 1,040 | 4.27  | 3.48  | 1008      | 4.23  | 3.50  |
| 일함          | 627         | 1.00  | 0.00  | 2,725    | 0.77  | 0.42  |             |       |       |       |           |       |       |
| 임금근로자로 일함   | 627         | 1.00  | 0.00  | 2,725    | 0.75  | 0.43  |             |       |       |       |           |       |       |
| 서울거주        | 627         | 0.25  | 0.43  | 2,725    | 0.21  | 0.40  | 서울거주        | 2,050 | 0.22  | 0.41  | 2009      | 0.22  | 0.42  |
| 광역시/특별시 거주  | 627         | 0.26  | 0.44  | 2,725    | 0.28  | 0.45  | 광역시/특별시 거주  | 2,050 | 0.29  | 0.45  | 2009      | 0.29  | 0.45  |
| 경기도 거주      | 627         | 0.25  | 0.43  | 2,725    | 0.24  | 0.43  | 경기도 거주      | 2,050 | 0.23  | 0.42  | 2009      | 0.23  | 0.42  |
| 기타 도 거주     | 627         | 0.24  | 0.43  | 2,725    | 0.27  | 0.44  | 기타 도 거주     | 2,050 | 0.26  | 0.44  | 2009      | 0.22  | 0.41  |

02
분석 방법

- ❖ **Kahn et al(2014) 모형 참조**
  - 모성패널티(임금, 경력단절 위험)의 장기효과를 NLS-YW를 이용하여 분석
  - 엄마의 연령대(20, 30, 40, 50대) × 자녀 수 변수 중심으로 FE 모형 추정
- ❖ **노동패널은 패널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 막내 자녀의 연령대 구간×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분석**
- ❖ **노동시장 상대적 위치 별 효과 격차를 추정하여야 하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구분 변수를 생성 후 자녀연령대×자녀유무×노동시장위치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
- ❖ **막내 자녀 연령대×자녀 유무 (Cage)**
  - 0: 무자녀
  - 1: 자녀 있음, 0~3세; 2: 자녀 있음, 4~9세; 3: 자녀 있음, 9세 이상
- ❖ **노동시장 구분: 윤윤규 외(2018)과 Hudson(2007) 차용**
  - 구분변수: 저임금여부(법정 개인회생 3인 가구 소득기준), 비정규직 여부, 퇴직금 유무
  - 0개 해당: 1차 노동시장
  - 1~3개 해당: 중간 이하 노동시장
  - 추가로, 공공부문/대기업(정규직)은 1차 노동시장 근무자 중에서도 별도로 구분함.
  - 총 3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변수 (D)

| 19

02
분석 방법

- ❖ **노동 이탈 확률 분석**
  - Drop1(노동이탈), Drop2(임금근로 이탈), Drop3(현재일자리 이탈)
  - $Drop_{i,t+1} = \beta_0 + [D_0 \times CAge]_{i,t}'\theta + X_{i,t}'\gamma + t_t + a_i + \epsilon_{i,t}$
  - LPM + FE를 사용함(\*패널길이 짧고, 불균형)
- ❖ **임금 손실 분석**
  - $\log wage_{i,t} = \beta_0 + [D_0 \times CAge]_{i,t}'\theta + X_{i,t}'\gamma + t_t + a_i + \epsilon_{i,t}$
- ❖ **통제변수(X)**
  - 연령, 교육연수, 근로시간, 경력, 경력제곱, (월평균 실질임금, 임금제곱), 비근로실질소득

| 20

## 02 | 주요 변수 기초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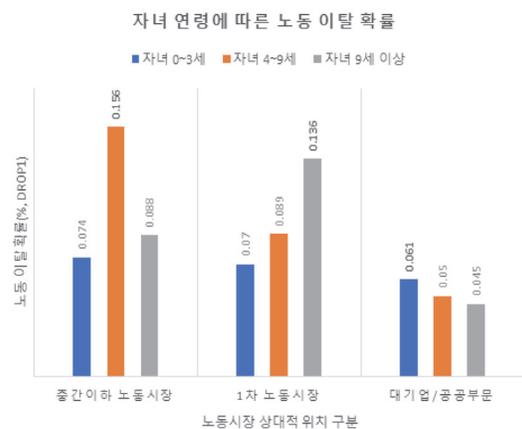
| 변수 내용             | 변수명          | 임금근로자  |        | 전일제 임금근로자 |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노동이탈1             | Drop1_t+1    | 0.07   | 0.26   | 0.07      | 0.25   |
| 노동이탈2             | Drop2_t+1    | 0.08   | 0.27   | 0.08      | 0.27   |
| 노동이탈3             | Drop3_t+2    | 0.39   | 0.49   | 0.39      | 0.49   |
| 실질임금              | Wage_real    | 226.78 | 101.72 | 229.38    | 100.89 |
| 가장 어린 자녀 연령 3세 미만 | Cage=1       | 0.26   | 0.44   | 0.26      | 0.44   |
| 가장 어린 자녀 연령 4~9세  | Cage=2       | 0.20   | 0.40   | 0.20      | 0.40   |
| 가장 어린 자녀 연령 9세 이상 | Cage=3       | 0.06   | 0.24   | 0.06      | 0.24   |
| 동거자녀 없음           | Cage=0       | 0.47   | 0.50   | 0.48      | 0.50   |
| 중간 이하 노동시장        | dualmkt=0    | 0.41   | 0.49   | 0.40      | 0.49   |
| 1차 노동시장           | dualmkt=1    | 0.25   | 0.43   | 0.25      | 0.43   |
| 대기업 정규직/공공부문      | dualmkt=2    | 0.34   | 0.47   | 0.35      | 0.48   |
| 주당 총 근로시간         | total_hours  | 42.56  | 6.53   | 42.80     | 6.14   |
| 상용직 총 경력(mo)      | ttenure2     | 94.45  | 65.50  | 94.71     | 65.84  |
| 비근로가구소득           | nonlabor_inc | 242.53 | 203.77 | 241.17    | 204.39 |

| 21

## 02 | 분석 결과 1: 노동 이탈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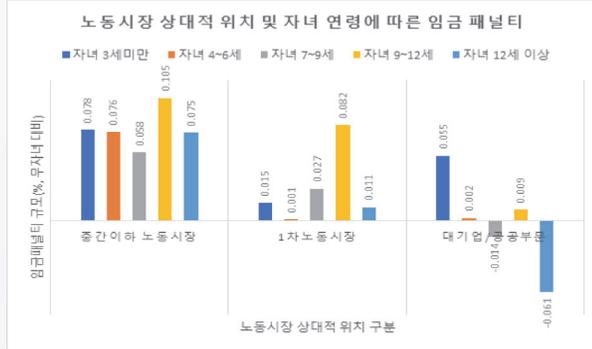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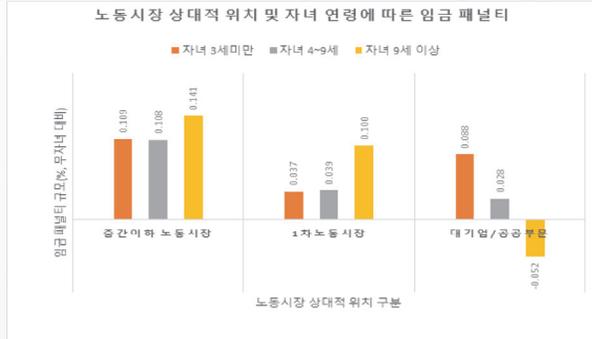
| FE                  | 전체 임금근로자           |                    | 전일제 임금근로자         |       |
|---------------------|--------------------|--------------------|-------------------|-------|
|                     | Drop1              | Drop2              | Drop3             | Drop3 |
| 중간이하 노동시장×자녀 3세 미만  | 0.074<br>(0.075)   | 0.102<br>(0.076)   | -0.101<br>(0.096) |       |
| 중간이하 노동시장×자녀 4~9세   | 0.156**<br>(0.076) | 0.173**<br>(0.081) | -0.017<br>(0.119) |       |
| 중간이하 노동시장×자녀 10세 이상 | 0.088<br>(0.101)   | 0.069<br>(0.100)   | -0.029<br>(0.216) |       |
| 1차 노동시장×무자녀         | 0.007<br>(0.042)   | 0.013<br>(0.042)   | -0.058<br>(0.064) |       |
| 1차 노동시장×자녀 3세 미만    | 0.077<br>(0.053)   | 0.084<br>(0.054)   | -0.015<br>(0.071) |       |
| 1차 노동시장×자녀 4~9세     | 0.096<br>(0.059)   | 0.108*<br>(0.060)  | -0.015<br>(0.082) |       |
| 1차 노동시장×자녀 9세 이상    | 0.143*<br>(0.080)  | 0.157*<br>(0.084)  | 0.071<br>(0.110)  |       |
| 대기업&공공부문×무자녀        | 0.045<br>(0.055)   | 0.058<br>(0.056)   | -0.065<br>(0.073) |       |
| 대기업&공공부문×자녀 3세 미만   | 0.106*<br>(0.056)  | 0.123**<br>(0.056) | -0.005<br>(0.073) |       |
| 대기업&공공부문×자녀 4~9세    | 0.095<br>(0.068)   | 0.116*<br>(0.069)  | 0.03<br>(0.087)   |       |
| 대기업&공공부문×자녀 10세 이상  | 0.09<br>(0.070)    | 0.11<br>(0.073)    | -0.07<br>(0.104)  |       |



| 22

## 02 | 분석 결과 2: 임금 손실

| logrealwage         | 임근근로자               | 전일제<br>임근근로자         |
|---------------------|---------------------|----------------------|
| 중간이하 노동시장×자녀 3세 미만  | -0.109**<br>(0.047) | -0.120***<br>(0.041) |
| 중간이하 노동시장×자녀 4-9세   | -0.108**<br>(0.045) | -0.140***<br>(0.044) |
| 중간이하 노동시장×자녀 10세 이상 | -0.141*<br>(0.080)  | -0.140*<br>(0.075)   |
| 1차 노동시장×무자녀         | 0.255***<br>(0.031) | 0.238***<br>(0.027)  |
| 1차 노동시장×자녀 3세 미만    | 0.218***<br>(0.043) | 0.197***<br>(0.040)  |
| 1차 노동시장×자녀 4-9세     | 0.216***<br>(0.050) | 0.197***<br>(0.048)  |
| 1차 노동시장×자녀 9세 이상    | 0.155**<br>(0.069)  | 0.124*<br>(0.070)    |
| 대기업&공공부문×무자녀        | 0.172***<br>(0.043) | 0.152***<br>(0.040)  |
| 대기업&공공부문×자녀 3세 미만   | 0.084<br>(0.053)    | 0.057<br>(0.048)     |
| 대기업&공공부문×자녀 4-9세    | 0.144***<br>(0.053) | 0.114**<br>(0.049)   |
| 대기업&공공부문×자녀 10세 이상  | 0.224*<br>(0.117)   | 0.178<br>(0.117)     |



## 02 | 기회비용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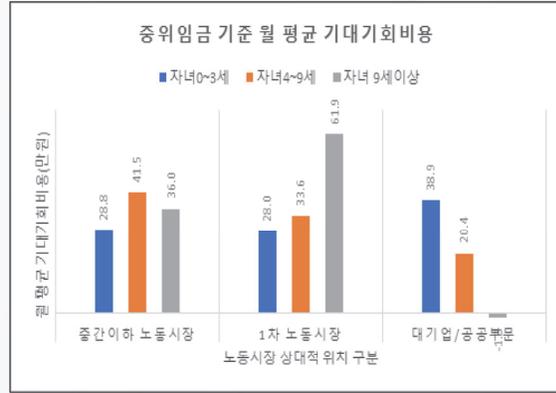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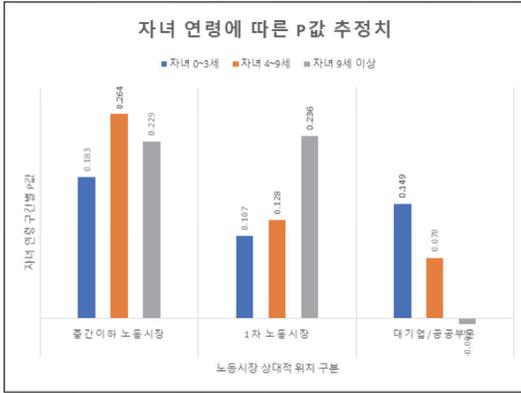
### ❖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출산의 기회비용 격차

$$\begin{aligned}
 Cost &= \sum_{j=0}^K \frac{1}{1+r^{t+j}} [(W_{t+j} - \tilde{W}_{t+j})\Pi_{t+j} + W_{t+j}\tilde{\Pi}_{t+j}], \\
 &\text{where } t+K=T \\
 &= \sum_{j=0}^K \frac{1}{1+r^{t+j}} W_{t+j} \left[ \left( \frac{W_{t+j} - \tilde{W}_{t+j}}{W_{t+j}} \right) \Pi_{t+j} + \tilde{\Pi}_{t+j} \right] \\
 &\approx \sum_{j=0}^K \frac{1}{1+r^{t+j}} W_{t+j} [\theta_{d,t+j}^{average} + \theta_{d,t+j}^{drop1}]
 \end{aligned}$$

Where,  $\left( \frac{W_{t+j} - \tilde{W}_{t+j}}{W_{t+j}} \right) \Pi_{t+j} \approx \theta_{d,t+j}^{average}$

### ❖ 출산의 임금 기회비용 항: $[\theta_{d,t+j}^{average} + \theta_{d,t+j}^{drop1}] = \rho_{d,t+j}$

02 | 기회비용 격차



III 정책 제언

03
정책 제언
KLI 한국노동연구원

**❖ 총평**

- 모성보호, 육아휴직 보장 등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패키지는 마련되어 있고, 관대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청년정책 기본계획)
- 하지만 출산-양육 여건과 관련된 노동시장 격차는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일하는 부부의 출산선택에 중요한 제약요소
  -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책별 문제점 파악 & 정책 보완책 마련 필요.
  - ➔ 예)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등) 확대 및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각 일터에서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생적 변화를 유도해야 함.
- 자녀 돌봄 환경 측면에서, 자녀 연령대별 ‘단절’이 발생함
  -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 문제 심각
  - ➔ 초등학교 운영시간 연장 or 보편적/질 높은 돌봄 공급 필요

| 27

03
정책 제언
KLI 한국노동연구원

- 돌봄 여건 격차 문제에 역량 집중 필요
  - 해외 주요 연구에서 다양한 가족정책 중 아동 돌봄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출이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유일한 정책임이 확인됨. (Olivetti and Petrongolo, 2017)
- 초등 진학 이전 돌봄: 어린이집 or 유치원: 보편적 지원 (지역별 공급률 80~100 +  $\alpha$  %)
  - 어린이집 & 유치원은 돌봄(쉼)+교육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전국 표준 과정과 일과가 있고, 만 2세 이상부터 각 어린이집, 유치원 별로 특별활동(미술, 음악, 체육, 외국어 등)을 월 15만원 한도내에서 일과시간 내 운영
  - 운영시간은 오전 7시~7시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체로 8시~7시 부모 퇴근 시간에 맞춰 운영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의 질 제고로 인해 최근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 경단여성실태조사 2016 vs 2019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돌봄 방법 중, 친인척 및 돌보미 이용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어린이집 이용 비중 성장(1+2순위 기준)
- 하지만 초등학생 돌봄 공백은 지역별-고용형태별 격차가 뚜렷
  - 돌봄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고 질이 낮음 ➔ 선호: 사교육+친인척/본인>>공적 돌봄
  - 초등돌봄교실은 아이들을 ‘보는데’ 초점
  - 특히, 정규직/풀타임 근무 여성은 공적 돌봄(e.g. 온종일돌봄)에 의존하지 못함
  - 서울지역 vs 그 외 격차
  - 앞선 분석에서도, ‘중간이하’ 노동시장 집단에서 유치원~초등저학년 연령대 노동이탈이 급증하는 것 확인
- ➔ 초등학교 운영시간 연장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처럼 체계적인 오후 돌봄이 희망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인프라 마련 필요

| 28





주제발표 3

# 경제위기 이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 변화: 탈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6회 인구포럼 발표문

경제위기 이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 변화:  
탈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

2021. 12. 3.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직

sangjiclee@nafi.re.kr

1

I. 들어가며

II. 전환기 성인 이행 구조 변화와 그 함의

- 1. 사회 변동과 생애 구조 변화
- 2. 사회적 시간표의 구조와 성격
- 3. 한 연구 사례: 2000년의 성인 이행 구조

III. 자료와 분석 방법

- 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 2. 측정
  - 1) 학업-노동지위
  - 2) 가족지위
- 3. 분석 방법

IV. 분석 결과

- 1. 1998년의 성인 이행 구조
  - 1) 학업-노동지위
  - 2) 가족지위
- 2. 2017년의 성인 이행 구조
  - 1) 학업-노동지위
  - 2) 가족지위
- 3.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의 관계 변화
  - 1) 생산 영역에서의 탈젠더화와 재생산 영역에서의 분화
  - 2) 결합 지위 구조 변화
  - 3) 이행 구조 변화의 성격: 노동시장을 매개로 한 성인 이행 경로의 계층화?

V. 성인 이행 구조 변화: 탈젠더화와 계층화?

2

## 연구 질문

1.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는 어떻게, 얼마나 변했나?
  - 1) 성인 이행기 구조: 특정 연령대의 이들이 생산·재생산 영역에서 점유하는 지위의 분포
  - 2) 1998년과 2017년의 15-34세 집단(1964-83년생/1983-2002년생)이 드러내는 구조 비교
  - 3)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시간표의 변화
2. 젠더와 계층 차원에서 성인 이행기 구조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 1) 남녀 차이는?
  -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성인 이행기 위치와 관계 맺는 양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3. 변화 양상은 같은 시기 한국의 교육, 노동, 가족 제도의 변동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 1) 고등 교육 팽창(기회의 확대), 서비스업 전환/임금 노동 확대와 기업규모·고용지위에 따른 위계화, 가족 관계의 재편(만혼, 비혼, 비출산)
  - 2)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의 관계 변화

3

##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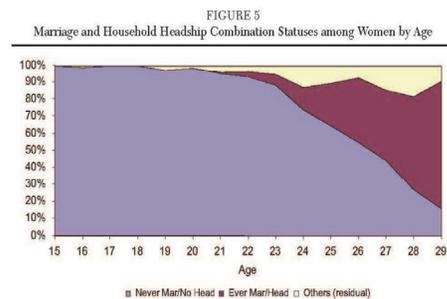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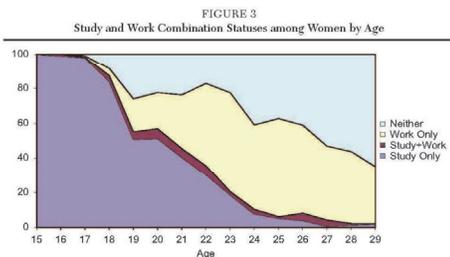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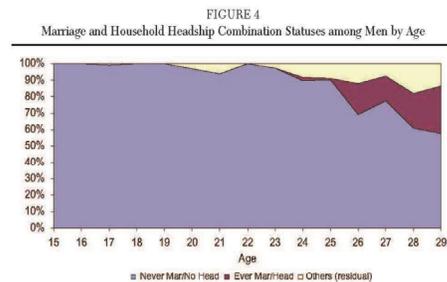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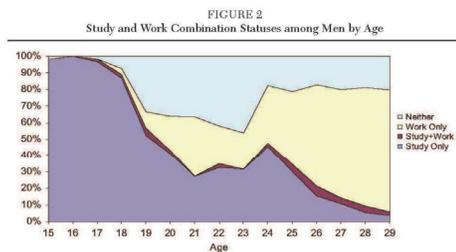
- 2000년대 이래 문제 집단으로서 ‘청년’ 등장
- 두 가지 접근: 이행(계층)론과 문화(세대)론
  - 이행론: 학교-노동시장 이행론/결혼·출산 이행론 [추상적 인과 관계론]
  - 문화론: 추상적 정체성론
- 라이프코스 연구의 관점
  - 장기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코호트 연구(최선영·장경섭, 2004; 이순미, 2014; 계봉오·황선재, 2016; 최성수·이수빈, 2018; Chung and Park, 2019; 최선영, 2020)
  -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계봉오·김영미, 2014; 이순미, 2017; 김은지 외, 2019; Choi et al., 2020; 함선유, 2020; 최세림, 2021)
  - 한국인의 생애를 규정하는 역사,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는 국가 비교 연구 (Park and Sandefur, 2005; 김영미, 2012)

4

경제위기 이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 변화: 탈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

|  |   |   |
|--|---|---|
|  <p><b>THE ANNALS</b><br/>OF THE AMERICAN ACADEMY OF<br/>POLITICAL AND SOCIAL SCIENCE</p>   | <p>Volume 646 <span style="float: right;">March 2013</span></p> <p style="text-align: center;">IN THIS ISSUE:</p> <p style="text-align: center;"><i>Transitioning to Adulthood in Asia: School, Work, and Family Life</i><br/>Special Editors: WEI-JUN JEAN YEUNG, CHERYLL ALIPIO,<br/>and FRANK F. FURSTENBERG JR.</p> | <p>Coming of Age in Times of Change: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China ..... <i>Wei-Jun Jean Yeung and Shu Hu</i> 149</p> <p>Lost in Transformation? The Employment Trajectories of China's Cultural Revolution Cohort ..... <i>Qianhan Lin</i> 172</p> <p>Negotiating Marriage and Schooling: Nepalese Women's Transition to Adulthood ..... <i>Yingchun Ji</i> 194</p> <p>Young Men in the Philippines: Mapping the Costs and Debts of Work, Marriage, and Family Life ..... <i>Cheryll Alipio</i> 214</p> <p>Youth, Gender, and the Workplace: Shifting Opportunities and Aspirations in an Indonesian Industrial Town. .... <i>Suzanne Naafs</i> 233</p> |
| <p>Transitioning to Adulthood in Asia: School, Work, and Family Life . . . .<br/><i>Wei-Jun Jean Yeung and Cheryll Alipio</i> 6</p> <p>Transitions to Adulthood: What We Can Learn from the West . . . . .<br/><i>Frank F. Furstenberg Jr.</i> 28</p> <p>The Changing Transitions to Adulthood across Southeast Asia: A Census Approach to Cross-National Comparisons . . . . . <i>Quamrun Nahar, Peter Xenos, and Jeffrey Abalos</i> 42</p> <p>The Transition Tempo and Life Course Orientation of Young Adults in Taiwan . . . . . <i>Lang-Wen Wendy Hung</i> 69</p> <p>The Transition to Adulthood among Japanese Youths: Understanding Courtship in Japan . . . . . <i>Hiroshi Ishida</i> 86</p> <p>The Changing Role of Women's Earnings in Marriage Formation in Japan . . . . . <i>Setuya Fukuda</i> 107</p> <p>The Transition to Adulthood among Korean Youths: Transition Markers in Productive and Reproductive Spheres . . . . . <i>Hyunjoon Park</i> 129</p> |   | <p><b>FORTHCOMING</b></p> <p><i>Reconsidering the Urban Disadvantage: The Role of System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i><br/>Special Editors: MARIO L. SMALL AND SCOTT W. ALLARD</p> <p><i>Youth Migration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in Developing Countries</i><br/>Special Editor: FATIMA JUAREZ CARCANO</p>   |
|  |   | 5   |

한국인의 성인 이행 구조(2000)



Park(2013)

TABLE 1  
Multinomial Logit Model of Study and Work Combination Statuses (Aged 15-29)

|   | Men                         |                          |                                  | Women                     |                          |                                  |
|---|-----------------------------|--------------------------|----------------------------------|---------------------------|--------------------------|----------------------------------|
|   | Study + Work vs. Study Only | Work Only vs. Study Only | No Study, No Work vs. Study Only | Study+Work vs. Study Only | Work Only vs. Study Only | No Study, No Work vs. Study Only |
| Age   | 0.541 (0.202)***            | 0.900 (0.118)****        | 0.836 (0.099)****                | 0.850 (0.218)****         | 1.412 (0.144)****        | 0.825 (0.125)****                |
| Age <sup>2</sup>                                | -0.017 (0.013)              | -0.027 (0.007)****       | -0.038 (0.007)****               | -0.034 (0.015)**          | -0.053 (0.009)****       | -0.017 (0.008)**                 |
| Father's education (reference = LT high school) |                             |                          |                                  |                           |                          |                                  |
| High school                                     | -0.504 (0.409)              | -0.749 (0.190)****       | -0.377 (0.180)**                 | -0.354 (0.368)            | -0.681 (0.193)****       | -0.644 (0.196)***                |
| Tertiary  | -0.408 (0.540)              | -1.337 (0.296)****       | -1.137 (0.298)****               | 0.022 (0.494)             | -1.163 (0.286)****       | -1.509 (0.308)****               |
| Father's occupation (reference = unskilled)     |                             |                          |                                  |                           |                          |                                  |
| Skilled labor                                   | 0.434 (0.470)               | -0.095 (0.217)           | 0.024 (0.210)                    | 0.504 (0.397)             | 0.160 (0.229)            | -0.248 (0.234)                   |
| Clerical/sale/service                           | 0.098 (0.497)               | -0.414 (0.224)*          | -0.208 (0.221)                   | -0.650 (0.455)            | -0.411 (0.223)*          | -0.522 (0.225)**                 |
| Professional/management                         | 0.609 (0.558)               | -0.229 (0.307)           | -0.118 (0.300)                   | -1.028 (0.578)*           | -0.828 (0.298)***        | -1.183 (0.321)****               |
| Intercept                                       | -5.351 (0.781)****          | -4.729 (0.476)****       | -3.658 (0.352)****               | -5.500 (0.800)****        | -5.916 (0.535)****       | -3.871 (0.442)****               |
| Log-likelihood                                  |                             | -1,236.7                 |                                  |                           | -1,402.7                 |                                  |
| N   |                             | 1,513                    |                                  |                           | 1,702                    |                                  |

\*p < .10. \*\*p < .05. \*\*\*p < .01. \*\*\*\*p < .001.

Park(2013)

TABLE 2  
Multinomial Logit Model of Marriage and Household Headship Combination Statuses (Aged 15-29)

|   | Men                                     |                              | Women                                   |                              |
|---|---|------------------------------|---|------------------------------|
|   | Ever Married/Head vs. Never-Mar/No Head | Others vs. Never-Mar/No Head | Ever Married/Head vs. Never-Mar/No Head | Others vs. Never-Mar/No Head |
| Age   | 3.290 (1.323)**                         | 0.605 (0.240)**              | 1.293 (0.388)**                         | 0.412 (0.231)*               |
| Age <sup>2</sup>                                    | -0.119 (0.055)**                        | -0.018 (0.012)               | -0.031 (0.018)*                         | -0.004 (0.012)               |
| Father's education (reference = LT high school)     |   |                              |   |                              |
| High school   | -0.071 (0.301)                          | -0.926 (0.344)****           | -0.220 (0.225)                          | 0.005 (0.265)                |
| Tertiary  | -0.080 (0.494)                          | -0.793 (0.504)               | -0.161 (0.395)                          | 0.345 (0.416)                |
| Father's occupation (reference = unskilled)         |   |                              |   |                              |
| Skilled labor                                       | -0.417 (0.314)                          | -0.925 (0.392)**             | -0.583 (0.255)**                        | -0.906 (0.318)****           |
| Clerical/sale/service                               | -0.264 (0.336)                          | 0.457 (0.293)                | -0.377 (0.250)                          | -0.535 (0.294)*              |
| Professional/management                             | -0.468 (0.496)                          | 0.149 (0.498)                | -0.516 (0.378)                          | -0.782 (0.453)*              |
| In school (reference = yes)                         | -0.647 (0.649)                          | 0.503 (0.415)                | -3.333 (1.038)****                      | -1.721 (0.599)****           |
| Respondent's education (reference = LT high school) |   |                              |   |                              |
| High school   | -0.687 (0.528)                          | -0.322 (0.562)               | -1.319 (0.610)**                        | -0.936 (0.671)               |
| Tertiary  | -1.256 (0.545)**                        | -0.839 (0.588)               | -2.056 (0.623)****                      | -1.779 (0.698)**             |
| Currently working (reference = yes)                 | 1.906 (0.422)****                       | 1.445 (0.344)****            | -1.369 (0.192)****                      | -0.460 (0.228)**             |
| Intercept   | -24.060 (7.897)****                     | -6.630 (1.244)****           | -8.090 (2.075)****                      | -3.477 (1.171)***            |
| Log-likelihood                                      |   | -472.2                       |   | -674.4                       |
| N   |   | 1,513                        |   | 1,702                        |

\*p < .10. \*\*p < .05. \*\*\*p < .01. \*\*\*\*p < .001.

“성인 이행기 (순조로운) 이행에서 가족 자원이 미치는 영향력은 확실히 여성에게서 더 크다.” (Park, 2013: 145)

# 자료와 분석 방법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1998년)/20차(2017년)
- 성인 이행기 구조 드러내기
  - 언제(만15-34세), 누구와 함께 지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 학업·노동지위: ① 학업, ② 학업+노동, ③ 노동, ④ 기타
    - 가족지위: ① 부모, ② 혼자, ③ 배우자, ④ 배우자+자녀, ⑤ 부모+배우자, ⑥ 부모+배우자+자녀, ⑦ 자녀
- 로짓 분석
  - 종속변수: 학업·노동지위의 특정 범주, 가족지위의 특정 범주
  - 독립변수: 연령, 성별, 아버지 교육수준[+어머니 교육수준][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15세 무렵) 부모 종사상지위[비정규직/기타, 정규직, 자영업], (15세 무렵) 가정 경제형편(평균 하회, 평균 이하, 평균, 평균 이상, 평균 상회)

## 학업·노동지위

### 설문지

\* 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설문지에 포함

#### [예비 설문지] (p\*\*0201)

[문 6]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 중 어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일자리입니까? 일자리가 여러 개인 경우 가장 중요한 일자의 일자리를 번호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_\_\_\_\_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혹시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일하는 일자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하는 시간도 동일할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 예) 나 1

(08) 미취업자 (→ 유형 1, 3, 5, 7이 없는 응답자)

#### [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설문지] (p\*\*0202, p\*\*0203)

[문 1] \_\_\_\_\_님께서는 평소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평소란 조사일 이전 6개월 동안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의 일을 임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무급 가족 봉사자)는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음

- (1) 주로 일을 하고 있음
- (2) 주로 가사일을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
- (3) 주로 통학(학교, 학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 (4) 가사 및 통학 이외의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 (5) 가사를 돌보고 있음
- (6) 어린이이를 돌보고 있음
- (7) 통학(학교, 학원)만 하고 있음
- (8) 아무 일도 하지 않음
- (9) 기타 (\_\_\_\_\_)

[문 2] \_\_\_\_\_님께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 (1) 일하였음 →문 4로 기십시오.
- (2) 일시 휴직 : 일시 휴직이란, 일거리나 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을 잠시 중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 (3) 구직활동
- (4) 가사
- (5) 육아
- (6) 정규교육기관 통학
- (7) 임시학원 통학
- (8)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 (9) 연로
- (10) 심신장애
- (11) 취업준비 (통학 제외)
- (12) 진학준비 (통학 제외)
- (13) 군입대 대기
- (14) 발령대기
- (15) 결혼준비
- (16) 지난 1주일은 일하지 않았으나 조사 진행 중에 일자리를 구했음 →문 4로 기십시오.
- (17) 쉬었음
- (18) 기타 (\_\_\_\_\_)

- ① 학업, ② 학업+노동, ③ 노동, ④ 기타

가족지위

<부표 5-2> 가구자료의 구조

| hhid01 | pid1  | pid2  | ... | sex1 | sex2 | ... | relation1 | relation2 | ... |
|--------|-------|-------|-----|------|------|-----|-----------|-----------|-----|
| 1      | 101   | 102   | ... | 여    | 여    | ... | 가구주       | 자녀        | ... |
| 2      | 201   | 202   | ... | 남    | 여    | ... | 가구주       | 배우자       | ... |
|        |       |       |     |      | ...  |     |           |           |     |
| 5000   | 50001 | 50002 | ... | 여    | 남    | ... | 가구주       | 부         | ... |

- ① 부모, ② 혼자, ③ 배우자,
- ④ 배우자+자녀, ⑤ 부모+배우자,
- ⑥ 부모+배우자+자녀, ⑦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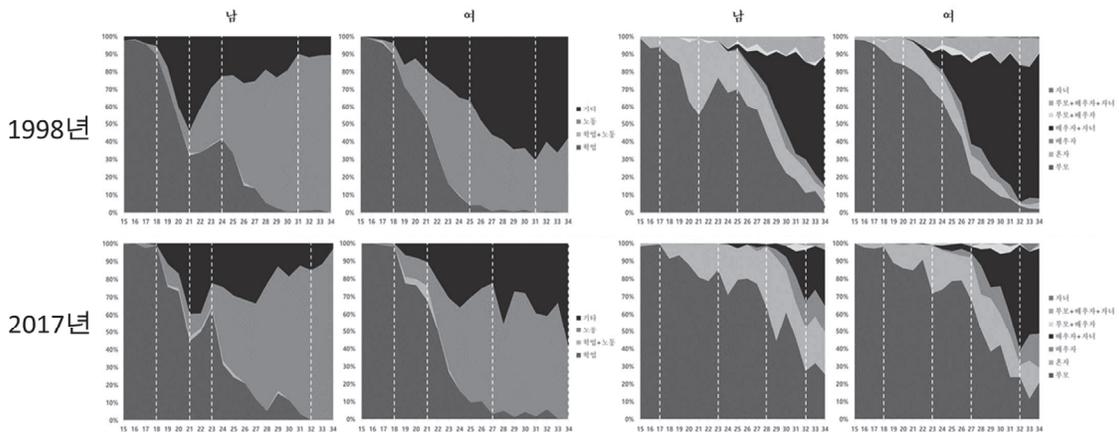
<부표 5-3> 가족형태와 가구원 관계[단위: 사례, (%)]

| 가족 형태             | 수준 1                  | 수준 2 | 가구주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 가구주              | 배우자             | 자녀               | 자녀 배우자        | 부모           | 배우자 부모        | 손자녀          | 손자녀 배우자     | 형제 자매         | 기타           | 합계                |                   |
| 1. 단독             | ① 단독(6.9)             |      | 2,650<br>(95.1)  |                 |                  |               |              |               |              |             |               | 112<br>(4.0) | 25<br>(0.9)       | 2,787<br>(100.0)  |
|                   |                       |      | 908<br>(32.0)    |                 | 1,916<br>(67.6)  |               |              |               |              |             |               | 2<br>(0.1)   | 9<br>(0.3)        | 2,835<br>(100.0)  |
| 2. 부(편)모-자녀 (7.8) | ③ 자녀+부모(0.8)          |      | 157<br>(50.5)    |                 |                  |               |              | 123<br>(39.6) |              |             |               | 29<br>(9.3)  | 2<br>(0.6)        | 311<br>(100.0)    |
|                   |                       |      | 2,769<br>(48.1)  | 2,961<br>(51.4) |                  |               |              |               |              |             |               | 18<br>(0.3)  | 11<br>(0.2)       | 5,759<br>(100.0)  |
| 3. 부부             | ④ 부부(14.3)            |      | 5,050<br>(22.6)  | 4,895<br>(21.9) | 12,306<br>(55.1) |               |              |               |              |             |               | 26<br>(0.1)  | 42<br>(0.2)       | 22,319<br>(100.0) |
|                   |                       |      | 178<br>(40.4)    | 173<br>(39.2)   |                  |               | 72<br>(16.3) | 12<br>(2.7)   |              |             |               | 6<br>(1.4)   |                   | 441<br>(100.0)    |
| 5. 부부-부모 (2.0)    | ⑦ 양(원)친+부(부)0.9       |      | 98<br>(26.3)     | 56<br>(15.1)    | 129<br>(34.7)    | 88<br>(23.7)  |              |               |              |             |               | 1<br>(0.3)   |                   | 372<br>(100.0)    |
|                   |                       |      | 677<br>(20.4)    | 584<br>(17.6)   | 1,639<br>(49.3)  | 5<br>(0.2)    | 324<br>(9.7) | 50<br>(1.5)   |              |             |               | 34<br>(1.0)  | 12<br>(0.4)       | 3,325<br>(100.0)  |
| 6. 3대 이상 (13.7)   | ⑩ 양(원)친+부(부)+손자녀(4.4) |      | 302<br>(17.0)    | 218<br>(12.3)   | 495<br>(27.8)    | 206<br>(11.6) | 3<br>(0.2)   |               |              |             | 542<br>(30.5) | 7<br>(0.4)   |                   | 1,780<br>(100.0)  |
|                   |                       |      | 114<br>(28.8)    | 70<br>(17.7)    |                  |               | 1<br>(0.3)   |               |              |             | 206<br>(52.0) | 3<br>(0.8)   |                   | 396<br>(100.0)    |
|                   | 합계                    |      | 12,903<br>(32.0) | 8,957<br>(22.2) | 16,485<br>(40.9) | 299<br>(0.7)  | 523<br>(1.3) | 62<br>(0.2)   | 748<br>(1.9) | 10<br>(0.0) | 228<br>(0.6)  | 110<br>(0.3) | 40,325<br>(100.0) |                   |

연령별 학업·노동지위와 가족지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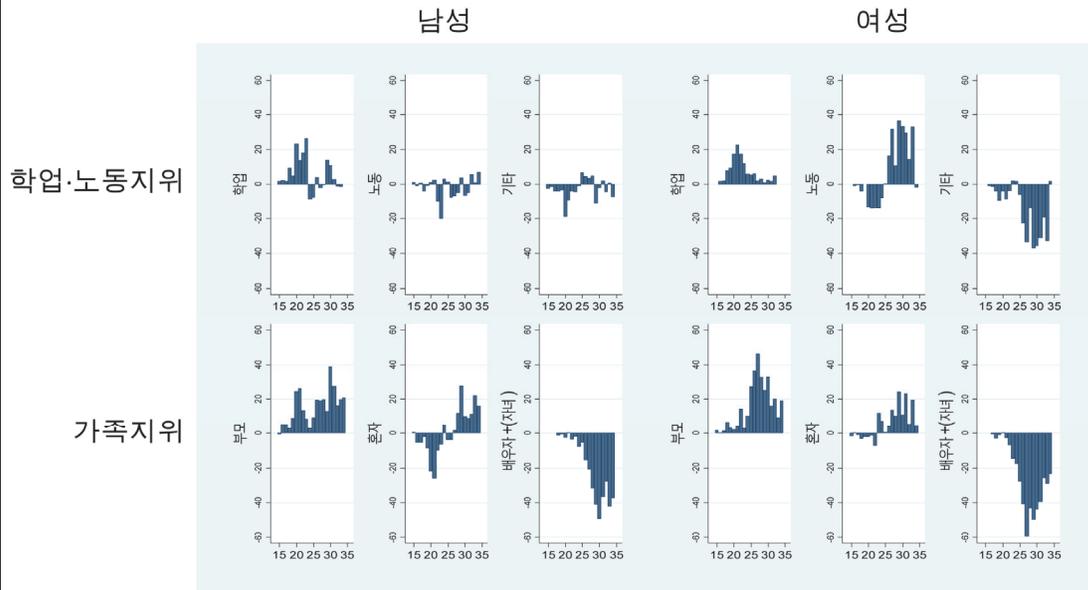
학업·노동지위

가족지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차, 20차)

### 연령별 학업·노동지위/가족지위 분포 변화(1998/2017)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차, 20차)

<표 5> 학업·노동지위와 가족지위의 관계(1998/2017)

|       | 남성    |       |         |       | 여성    |       |         |       |
|-------|-------|-------|---------|-------|-------|-------|---------|-------|
|       | 부모    | 혼자    | 배우자+ 자녀 | 합계    | 부모    | 혼자    | 배우자+ 자녀 | 합계    |
| 1998년 |       |       |         |       |       |       |         |       |
| 학업    | 85.4  | 13.4  | 1.2     | 100.0 | 89.3  | 9.5   | 1.2     | 100.0 |
|       | 56.0  | 30.1  | 1.3     | 34.8  | 55.9  | 33.6  | 0.8     | 29.7  |
|       | 29.7  | 4.7   | 0.4     | 34.8  | 26.5  | 2.8   | 0.4     | 29.7  |
| 노동    | 28.8  | 14.1  | 57.1    | 100.0 | 43.6  | 13.3  | 43.1    | 100.0 |
|       | 25.9  | 43.1  | 87.0    | 47.7  | 29.8  | 51.5  | 31.5    | 32.4  |
|       | 13.7  | 6.7   | 27.2    | 47.7  | 14.1  | 4.3   | 14.0    | 32.4  |
| 기타    | 55.2  | 23.8  | 21.0    | 100.0 | 17.8  | 3.3   | 78.9    | 100.0 |
|       | 18.2  | 26.8  | 11.7    | 17.5  | 14.3  | 14.9  | 67.6    | 38.0  |
|       | 9.7   | 4.2   | 3.7     | 17.5  | 6.8   | 1.3   | 30.0    | 38.0  |
| 합계    | 53.1  | 15.6  | 31.3    | 100.0 | 47.3  | 8.4   | 44.3    | 100.0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53.1  | 15.6  | 31.3    | 100.0 | 47.3  | 8.4   | 44.3    | 100.0 |
| 2017년 |       |       |         |       |       |       |         |       |
| 학업    | 88.7  | 11.1  | 0.2     | 100.0 | 91.3  | 8.4   | 0.3     | 100.0 |
|       | 49.0  | 20.7  | 0.5     | 36.7  | 51.2  | 20.7  | 0.5     | 35.8  |
|       | 32.6  | 4.1   | 0.1     | 36.7  | 32.6  | 3.0   | 0.1     | 35.8  |
| 노동    | 42.0  | 29.7  | 28.3    | 100.0 | 52.8  | 24.4  | 22.8    | 100.0 |
|       | 29.5  | 70.5  | 94.7    | 46.6  | 32.5  | 65.6  | 41.1    | 39.2  |
|       | 19.6  | 13.9  | 13.2    | 46.6  | 20.7  | 9.5   | 8.9     | 39.2  |
| 기타    | 85.5  | 10.4  | 4.0     | 100.0 | 41.5  | 7.9   | 50.6    | 100.0 |
|       | 21.5  | 8.9   | 4.8     | 16.7  | 16.3  | 13.7  | 58.4    | 25.1  |
|       | 14.3  | 1.7   | 0.7     | 16.7  | 10.4  | 2.0   | 12.7    | 25.1  |
| 합계    | 66.4  | 19.7  | 13.9    | 100.0 | 63.7  | 14.5  | 21.7    | 100.0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66.4  | 19.7  | 13.9    | 100.0 | 63.7  | 14.5  | 21.7    | 100.0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차, 20차)

# 1998년과 2017년

- 전체
  - 학업노동지위: '학업' 지위 비중 증가(특히 여성), '노동' 지위 비중 증가(여성만), '기타' 비중 감소(여성만)
  - 가족지위: '부모'와 함께 지위 비중 증가(특히 여성), '혼자' 지위 비중 증가, '배우자(+자녀)와 함께 지위 대폭 감소
  - 결합지위
    - 남성: '학업-부모'(29.7%), '노동-배우자(+자녀)'(27.2%), '노동-부모'(13.7%) → '학업-부모'(32.6%), '노동-부모'(19.6%), '기타-부모'(14.3%)
    - 여성: '기타-배우자(+자녀)'(30.0%), '학업-부모'(26.5%), '노동-부모'(14.1%) → '학업-부모'(32.6%), '노동-부모'(20.7%), '기타-배우자(+자녀)'(13%), '노동-혼자'(9.5%)
- 시점별
  - 남성: 20대 초반과 20대 후반-30대 초반에서 소폭 변화
  - 여성: 20대 전반과 30대 중반에서 대폭 변화
- 종합
  - 생애 시간표의 남녀 수렴 경향, 뚜렷하게 구별되는 생애 '경로들' 등장
  - 분화인가? 총화인가?
  -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의 연계가 느슨해지는 것인가, 재편되는 것인가?

<표 6> 학업·노동지위 귀속 가능성에 대한 로짓분석(1998, 2017)

|                     | 1998년               |                     |                     |                     | 2017년               |                     |                     |                     |                     |                     |                     |                     |
|---------------------|---------------------|---------------------|---------------------|---------------------|---------------------|---------------------|---------------------|---------------------|---------------------|---------------------|---------------------|---------------------|
|                     | 남성                  |                     | 여성                  |                     | 남성                  |                     | 여성                  |                     |                     |                     |                     |                     |
|                     | 노동                  | 기타                  | 노동                  | 기타                  | 노동                  | 기타                  | 노동                  | 기타                  |                     |                     |                     |                     |
|                     | 기준: 학업              |                     | 기준: 학업              |                     | 기준: 학업              |                     | 기준: 학업              |                     |                     |                     |                     |                     |
| 연령                  | 1.02***<br>(0.18)   | 0.78***<br>(0.15)   | 1.75***<br>(0.23)   | 1.87***<br>(0.27)   | 0.88***<br>(0.32)   | 1.45***<br>(0.25)   | 2.37***<br>(0.35)   | 1.77***<br>(0.30)   | 0.88***<br>(0.33)   | 1.49***<br>(0.26)   | 2.42***<br>(0.33)   | 1.84***<br>(0.29)   |
| 연령제곱                | -0.01***<br>(0.00)  | -0.01***<br>(0.00)  | -0.02***<br>(0.01)  | -0.03***<br>(0.01)  | -0.01<br>(0.01)     | -0.02***<br>(0.01)  | -0.04***<br>(0.01)  | -0.03***<br>(0.01)  | -0.01<br>(0.01)     | -0.02***<br>(0.01)  | -0.04***<br>(0.01)  | -0.03***<br>(0.01)  |
| 아버지 교육수준(기준: 중졸 이하) |                     |                     |                     |                     |                     |                     |                     |                     |                     |                     |                     |                     |
| 고졸                  | -0.82***<br>(0.17)  | -0.76***<br>(0.16)  | -0.72***<br>(0.17)  | -0.89***<br>(0.18)  | -0.36<br>(0.36)     | -0.43<br>(0.35)     | -0.34<br>(0.36)     | -0.56<br>(0.36)     | 0.12<br>(0.40)      | 0.22<br>(0.40)      | -0.20<br>(0.44)     | -0.34<br>(0.47)     |
| 전문대졸                | -1.71***<br>(0.23)  | -1.46***<br>(0.25)  | -1.45***<br>(0.21)  | -2.06***<br>(0.24)  | -0.94**<br>(0.38)   | -0.97***<br>(0.37)  | -0.98**<br>(0.39)   | -1.07***<br>(0.39)  | -0.04<br>(0.48)     | 0.12<br>(0.46)      | -0.41<br>(0.51)     | -0.64<br>(0.54)     |
| 어머니 교육수준(기준: 중졸 이하) |                     |                     |                     |                     |                     |                     |                     |                     |                     |                     |                     |                     |
| 고졸                  |                     |                     |                     |                     |                     |                     |                     |                     | -0.67*<br>(0.39)    | -1.02***<br>(0.39)  | 0.02<br>(0.44)      | -0.26<br>(0.48)     |
| 전문대졸                |                     |                     |                     |                     |                     |                     |                     |                     | -1.01**<br>(0.52)   | -1.31***<br>(0.48)  | -0.66<br>(0.52)     | -0.54<br>(0.58)     |
| 부모 종사상지위(기준: 정규직)   |                     |                     |                     |                     |                     |                     |                     |                     |                     |                     |                     |                     |
| 비정규직/기타             | 0.31<br>(0.24)      | 0.60***<br>(0.23)   | 0.42<br>(0.28)      | 0.49*<br>(0.29)     | 0.85***<br>(0.33)   | 0.09<br>(0.32)      | 0.57<br>(0.38)      | 0.22<br>(0.40)      | 0.31<br>(0.37)      | -0.46<br>(0.34)     | 0.30<br>(0.37)      | 0.05<br>(0.39)      |
| 자영업                 | 0.17<br>(0.16)      | 0.21<br>(0.16)      | 0.21<br>(0.16)      | 0.36**<br>(0.17)    | 0.26<br>(0.26)      | -0.02<br>(0.25)     | 0.51**<br>(0.25)    | 0.67***<br>(0.26)   | 0.20<br>(0.27)      | -0.08<br>(0.26)     | 0.52**<br>(0.26)    | 0.68***<br>(0.26)   |
| 가정 경제형편             |                     |                     |                     |                     |                     |                     |                     |                     | -0.73***<br>(0.20)  | -0.69***<br>(0.20)  | -0.60***<br>(0.23)  | -0.21<br>(0.24)     |
| Constant            | -17.97***<br>(2.27) | -12.65***<br>(1.66) | -25.75***<br>(2.67) | -28.47***<br>(3.13) | -16.57***<br>(4.03) | -20.40***<br>(2.85) | -34.44***<br>(4.43) | -26.87***<br>(3.68) | -14.99***<br>(4.18) | -19.20***<br>(2.98) | -34.11***<br>(4.29) | -27.28***<br>(3.65) |
| N                   | 2,655               |                     | 2,803               |                     | 1,371               |                     | 1,479               |                     | 1,371               |                     | 1,479               |                     |

\* < 0.10. \*\* < 0.05. \*\*\* < 0.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차, 20차)

경제위기 이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 변화: 탈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

<표 7> 가족지위 귀속 가능성에 대한 모싯분석(1998, 2017)

|                     | 1998년              |                     |                     |                     | 2017년               |                   |                    |                      |                     |  |
|---------------------|--------------------|---------------------|---------------------|---------------------|---------------------|-------------------|--------------------|----------------------|---------------------|--|
|                     | 남성                 |                     | 여성                  |                     | 남성                  |                   | 여성                 |                      |                     |  |
|                     | 혼자                 | 배우자+ 자녀             | 혼자                  | 배우자+ 자녀             | 혼자                  | 배우자+ 자녀           | 혼자                 | 배우자+ 자녀              |                     |  |
|                     | 기준: 부모             |                     | 기준: 부모              |                     | 기준: 부모              |                   | 기준: 부모             |                      |                     |  |
| 연령                  | 0.30**<br>(0.13)   | 0.63*<br>(0.32)     | 0.68***<br>(0.20)   | 1.00***<br>(0.34)   | 0.70***<br>(0.25)   | 0.44*<br>(0.58)   | 2.10***<br>(0.23)  | 0.47**<br>(0.69)     | 2.17***<br>(0.25)   |  |
| 연령제곱                | -0.00*<br>(0.00)   | 0.00<br>(0.01)      | -0.01**<br>(0.00)   | -0.01<br>(0.01)     | -0.01**<br>(0.00)   | 0.02*<br>(0.01)   | -0.01<br>(0.01)    | -0.03**<br>(0.01)    | 0.02**<br>(0.01)    |  |
| 교육수준(기준: 고졸 이하)     |                    |                     |                     |                     |                     |                   |                    |                      |                     |  |
| 전문대졸                | 0.47***<br>(0.15)  | -0.12<br>(0.19)     | 0.09<br>(0.19)      | -0.86***<br>(0.19)  | 0.09<br>(0.30)      | 0.72*<br>(0.42)   | 0.3<br>(0.31)      | -0.24<br>(0.35)      | 0.2<br>(0.29)       |  |
| 대졸                  | 0.24<br>(0.20)     | -0.07<br>(0.17)     | -0.09<br>(0.24)     | -0.93***<br>(0.21)  | 0.25<br>(0.33)      | 0.62<br>(0.39)    | 0.2<br>(0.38)      | -0.43<br>(0.34)      | 0.37<br>(0.32)      |  |
| 노동지위(기준: 기타)        |                    |                     |                     |                     |                     |                   |                    |                      |                     |  |
| 학업                  | -0.50***<br>(0.19) | -0.74*<br>(0.38)    | 0.79***<br>(0.29)   | -2.33***<br>(0.43)  | 0.93**<br>(0.37)    | 2.03*<br>(1.23)   | 0.43<br>(0.41)     | -2.80***<br>(0.79)   | 0.94**<br>(0.38)    |  |
| 노동                  | -0.18<br>(0.16)    | 0.85***<br>(0.19)   | 0.48**<br>(0.22)    | -1.64***<br>(0.16)  | 1.37***<br>(0.50)   | 4.58***<br>(1.03) | 0.69**<br>(0.33)   | -1.46***<br>(0.25)   | 1.39***<br>(0.30)   |  |
| 이버저 교육수준(기준: 중졸 이하) |                    |                     |                     |                     |                     |                   |                    |                      |                     |  |
| 고졸                  | -0.44***<br>(0.14) | -0.41**<br>(0.17)   | -0.24<br>(0.17)     | -0.51***<br>(0.17)  | -0.24<br>(0.27)     | -0.01<br>(0.37)   | -0.17<br>(0.29)    | -0.22<br>(0.29)      | 0.13<br>(0.32)      |  |
| 전문대졸                | -0.09<br>(0.19)    | -0.09<br>(0.25)     | -0.24<br>(0.24)     | -0.32<br>(0.26)     | -0.14<br>(0.33)     | 0.02<br>(0.45)    | -0.35<br>(0.34)    | -0.35<br>(0.38)      | 0.04<br>(0.43)      |  |
| 어머니 교육수준(기준: 중졸 이하) |                    |                     |                     |                     |                     |                   |                    |                      |                     |  |
| 고졸                  |                    |                     |                     |                     |                     |                   |                    | -0.62**<br>(0.31)    | 0.04<br>(0.41)      |  |
| 전문대졸                |                    |                     |                     |                     |                     |                   |                    | 0.09<br>(0.45)       | 0.33<br>(0.68)      |  |
| 부모 종사상지위(기준: 정규직)   |                    |                     |                     |                     |                     |                   |                    |                      |                     |  |
| 비정규직/기타             | -0.24<br>(0.22)    | 0.28<br>(0.24)      | -0.08<br>(0.28)     | -0.52**<br>(0.26)   | 0.35<br>(0.31)      | 0.70<br>(0.51)    | -0.15<br>(0.29)    | -0.57<br>(0.35)      | 0.21<br>(0.32)      |  |
| 자영업                 | 0.52***<br>(0.13)  | 0.49***<br>(0.16)   | 0.54***<br>(0.16)   | 0.64***<br>(0.16)   | 0.13<br>(0.23)      | -0.22<br>(0.31)   | -0.04<br>(0.24)    | 0.23<br>(0.26)       | 0.13<br>(0.23)      |  |
| 가정 경제형편             |                    |                     |                     |                     |                     |                   |                    |                      |                     |  |
| Constant            | -6.29***<br>(1.47) | -16.65***<br>(4.55) | -11.57***<br>(2.34) | -20.89***<br>(4.50) | -11.85***<br>(3.04) | -5.38<br>(8.27)   | -8.69***<br>(2.77) | -39.21***<br>(10.05) | -11.89***<br>(3.05) |  |
| N                   | 2,655              |                     | 2,803               |                     | 1,371               |                   | 1,479              |                      | 1,371               |  |

\* < 0.10. \*\* < 0.05. \*\*\* < 0.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차, 20차)

## 결론

- 경제위기 이후 성인 이행 구조 변화
  - 생산 영역에서의 젠더화된 이행과 재생산 영역에서의 보편 이행 → 생산 영역에서의 보편 이행과 재생산 영역에서의 분화된 이행
  - 부모 영향력의 차별적 강화?
    - 남성 내 층화, 여성 내 분화 -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 관계의 균형이 깨짐
- 해석의 지점
  - 성인 이행 구조 변화와 가족배경 영향력 강화(?)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 탈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 층화는 맞으나 이것이 능력주의 강화의 결과인지 약화의 결과인지 말하기 어려움
  - 두 가지 균형 시나리오 : 재생산 영역에서 여성에게서도 계층화가 뚜렷해질 경우, 젠더/계층 차원 모두에서 차이가 작아지는 경우
- 더 나아가야 할 지점
  - 생애 시간표의 형식과 내용의 차이를 밝혀야
  - 교육, 가족, 노동 제도(산업구조) 변화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